



주간통일정세 2009-41(2009.10.05~10.11)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 주간 통일정세

2009-41

##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 I. 북한동향

### 1. 대내정세

#### 가. 김정일 동향

##### ● 김정일, 창당 64주년 공연 관람(10/10,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동당 창당 64주년(10.10)에 즈음해 은하수관현악단, 만수대예술단, 삼지연악단의 합동 경축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
- 공연 관람에는 최태복 김기남 당 중앙위원회 비서와 중앙위원회 부장 및 제1부부장들과 주상성 인민보안상,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수행

##### ● 北 김정운 이름 널리 알려져 있어(10/6, 더타임스)

- 북한에서 지난 4월 엄청난 규모의 화려한 불꽃놀이가 있었고 이는 ‘젊은 장군님’ 김정운을 위한 것이었다는 소문이 퍼져 있다고 더 타임스가 6일 보도
- 북한 정권의 후계문제와 관련해 이 신문은 “평양에서 많은 화려한 불꽃놀이가 있었지만 4월 봄 하늘을 밝혔던 것이 가장 환상적이었다”며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평양 엘리트 사이에서는 이 불꽃놀이가 ‘젊은 장군님’을 위한 것이었다는 소문이 암암리에 퍼졌다”고 보도
- 더 타임스는 “1년 전만해도 북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만 ‘김정운’의 이름을 들었었지만 이제는 널리 알려져 있다”며 “역사상 유일하게 공산주의 독재정권을 세습받기 위해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다”고 강조, 신문은 “올해 초 젊은 장군님을 칭송하는 노래가 엘리트층에 퍼졌으나 최근 남한으로 유출된 북한 내부문서에 따르면 김정운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이 금지됐다”며 “북한의 안내원들도 이를 들어봤지만 김정운의 이름을 언급하자 피하려 했다”고 설명

##### ● 김정일 후계자 김정은, 당 조직부서 부국장급(10/6, 중앙일보)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에 내정된 셋째 아들 김정은(25)이 현재 노동당 조직 관련 부서에 ‘부국장급’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중앙일보가 6일 보도, 또 김정은의 후계 공식 데뷔는 이르면 내년 부터 북한이 강성대국 진입 시기로 공언한 2012년 사이에 이뤄질 것으로 정부 관계당국은 분석
- 자료에 따르면 김정은은 1984년 출생해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을 졸업, 당국은 ‘정식으로 통학하며 수업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교수나 군부 인





롭 회장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8.16 면담'에 따른 5개항의 교류사업 합의를 상기시킴.

-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10일 최근 방북 결과와 관련, “북한 측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했을 뿐 아니라 일본, 한국과도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한다”고 말해 김정일 위원장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전언
- ‘우리민족끼리’는 “북과 남 사이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 협력과 교류를 확대해나가며 이 과정을 통하여 민족의 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앞당기려는 것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중요한 요구”라며 “온 겨레는 북남공동선언들을 귀중히 여기면서 그 이행을 통해 북남관계 개선과 통일을 하루빨리 이룩할 것을 절절히 바라고 있다”고 주장

#### ● 창당 64돌 축포야회 개최(10/1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저녁 평양 ‘당창건기념탑’ 광장에서 창당 64돌 축포야회 ‘위대한 당을 따라 신심높이 가리라’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을 비롯해 북한 언론매체들이 10일 보도
- 야회에는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일 총리, 김영춘 인민무력부장, 전병호 최태복 김국태 김중린 김기남 당 중앙위 비서, 리용무 오극렬 국방위원회 부위원장, 리영호 총참모장,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김일철 인민무력부 제1부부장,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최영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서기장,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유미영 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등 고위 당·군·정 간부들이 대거 참석, 또 야회에는 북한 주재 외교사절과 국제기구 대표들도 참석
- 최태복 비서는 연설에서 “축포의 불보라는 혁명의 수뇌부 두리(주위)에 일심단결하여 이 세상 끝까지 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철석같은 신념과 의지의 분출이며 온 천지를 진감하며 울려 퍼지게 될 축포성은 강성대국의 대문을 세차게 두드리는 승리의 뇌성으로 될 것”이라고 주장

#### ● 北매체들, 노동당 창당기념일 김정일 찬가(10/11, 연합)

- 북한 노동당 창당 64주년을 맞아 북한 매체들은 10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찬양하는 사설 등을 일제히 쏟아내고 그를 중심으로 단결할 것과 ‘150일 전투’에 이은 ‘100일 전투’에서 비약적인 성과를 낼 것을 주문
- 신문은 ‘조선노동당은 김일성 동지의 부강조국 건설 위업을 빛나게 실현해 나가는 세련된 위대한 향도자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김 위원장에 대해 “조선노동당의 위대한 영도자이시며 우리 조국과 혁명의 백전백승의 상징”이라며 “혁명의 수뇌부 결사옹위의 기치를 높이 치켜들고 우리 당을 수령결사옹위의 전일체, 선군혁명동지의 대오로 더욱 굳건히 다져 나가야 한다”고 강조







● **北, 핵보유국 걸맞게 행동하고 있다(10/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일 이스라엘이 최근 북한과 이란간 핵개발 협력설을 기정사실화하는 등 “허튼 여론”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우리 공화국(북)은 당당한 핵보유국의 지위에 맞게 자기 할 바를 다하고 있다”고 주장

● **원자바오, 방북 성과 만족(10/6, 조선중앙통신)**

-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6일 오전 북한 방문을 마치고 귀국에 앞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감사 전문을 보내 “방문에서 이룩한 성과에 대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원 총리는 전문에서 “우리들은 중조(중국-북한) 관계와 공동의 관심사로 되는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하여 솔직하고 깊이있는 의사소통을 진행하여 광범한 공동인식을 이룩하였다”며 “이번 방문은 쌍방 사이의 호상(상호) 이해와 신뢰를 더욱 두터이하였으며 두 나라의 각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를 추동하였다”고 평가
- 그는 북한의 “열정적인 환대와 주도세밀한 조직사업에 대하여” 사의를 표하고 방북 기간에 “사회주의 건설위업에서 이룩한 기뻐할 만한 성과를 직접 보았으며 중국 인민에 대한 조선 인민의 깊고 두터운 정을 직접 느낄 수 있었다”고 언급
- 그는 이 전문을 김 위원장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김영일 총리 세 사람 앞으로 보냈음.
- 원자바오 총리는 이날 평양 순안구역 ‘조중 친선 택암협동농장’을 참관, 통신은 6일 오후 원 총리의 귀국 소식을 전하면서 공항에서 환송식이 열렸으며 원 총리가 “수도(평양)의 거리들에서 평양 시민들의 열렬한 환송을 받았다”고 보도

다. 경제 관련

● **北, 1980년대 말 최고실적 돌파 목표(10/7, 조선신보)**

- 북한은 ‘150일 전투’(4.20-9.16)에서 기록적인 생산 실적을 올렸으며, 일부 기업소는 2012년까지 “1980년대 말에 이룩한 최고 생산실적을 초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조총련 계열 조선대학교의 지영일 사회과학연구소장이 주장
- 조선신보에 기고한 ‘<지영일 교수의 월간 경제평론> 150일 전투와 경제강국 건설 전망’이라는 글에서 “2012년의 생산목표를 현재 생산수준의 3배 이상으로 설정한 기업들이 적지 않으며” 금속, 전력, 석탄공업, 철도운수 부문의 어떤 기업소에서는 6배로 내세운 곳도 있다고 주장









말해 대북제재와 같은 강력한 경제제재를 담은 이란관 제재가 이뤄질 수 있음을 내비침.

● **日, 北 6자회담 조건부 복귀 의사 환영(10/6, 연합)**

- 일본 정부는 북한의 6자회담 조건부 복귀 선언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힘. 오카다 외무상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지금까지 6자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으나 성명에서 특별히 6자회담이라는 용어를 언급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강조
- 그는 이어 “북미 양자대화는 6자회담에 앞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6자회담의 틀 내에서 엄격히 이뤄져야한다”며 “6자회담이 곧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

● **러시아, 北조건부 6자회담 복귀 발언 환영(10/6, 이타르타스 통신)**

- 러시아 정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회담에서 ‘조건부 6자회담 복귀’ 입장을 밝힌데 대해 일단 환영을 표시함.
-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무부 아태담당 차관은 6일 관영 이타르타스 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6자회담 협상으로 돌아올 준비가 돼 있다는 데 대해 환영하며 이를 더 미룰 필요가 없다”면서 즉각적인 협상 재개를 촉구

● **김정일, 다자회담에는 6자회담도 포함(10/6,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5일 방북중인 원자바오 중국 총리를 만나 북핵 문제와 관련, “우리는 (이미) 조미(북미) 회담결과를 보고 다자회담을 진행할 용의를 표명하였다”며 “다자회담에는 6자회담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
- 통신은 김 위원장이 원자바오 총리의 숙소를 방문, 면담한 자리에서 “조선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다. 조미 양자회담을 통하여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는 반드시 평화적인 관계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하고 “조선반도 비핵화 목표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고 소개
- 김 위원장은 백화원영빈관에서 면담 뒤 원 총리 일행을 위해 만찬을 열고 원 총리와 작별인사를 나눴다고 통신은 보도, 만찬에는 북측에서 장성택, 김양건 노동당 부장과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김영일 외무성 부상 등이 참석

나. 북·미 관계

● **美NGO, 北리근 이달 말 방미 초청(10/11, 연합)**

- 미국 국무부는 9일 북한의 리 근 외무성 미국국장이 10월 말 방미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와 관련, “비정부기구(NGO)들이 리근 국장을 미



국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도록 초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확인했음.

-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그러나 미 행정부가 리 국장의 미국 방문을 허가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언급

#### ● 北리근, 10월 말 방미 추진(10/9, 연합)

- 북한의 리 근 외무성 미국국장이 26~27일 미국 서부에서 열리는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방문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됨. 외교소식통은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한의 리 근 외무성 미국국장이 NEACD 참석차 이달 말 미국을 방문하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미국이 비자를 발급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전언
- NEACD는 미 캘리포니아 대학 산하 '세계분쟁 및 협력연구소(IGCC)'가 남북한과 미·일·중·러 등 6자 회담 참가국 외교·국방부 관료와 학자들을 초청해 개최하는 다자간 포럼으로, 올해는 26~2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라호아에서 개최됨.

#### ● 美, '김정일 언급' 신중판단 유지(10/7, 연합)

-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7일 워싱턴 포린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의 언급에 대한 질문에 “북한이 최근 수주, 수개월간 했던 것과는 다른 언급”이라면서도 “앞으로 상황 진전에 따라 이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힘. 그러면서 북미 대화가 열리게 된다면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의지가 있는지를 시험해 보겠다고면서 “말이 아닌 북한의 행동에 의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

#### ● 美당국자, 북미대화 형식, 대표 등 협의중(10/7, 연합)

- 미국은 북미대화를 결정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누구를 대표로 보낼지 등에 대해 6자회담 참가국들과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미 국무부 당국자는 7일 연합뉴스 기자 등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대화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아직 아무런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양자대화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5자간에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언급
- 이 당국자는 “다만 어떤 형식이 가장 좋은지, 또 대화에 나서는 사람은 누구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어떻게 하는 것이 6자회담 재개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최선의 기회를 만들 것인지 등에 대해 파트너들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구체적인 대화 형식 등의 문제를 두고 관련국간 협의 절차가 진행중임을 시사



## 다. 북·중 관계

### ● 中충칭-北평양 관광노선 개설(10/9, 중경상보)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방북 당시 중국과 북한이 체결한 관광 협약에 따라 중국 충칭에서 평양을 관광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 노선이 개설된다고 중경상보(重慶商報)가 9일 보도
- 신설되는 충칭-평양 관광노선은 4일 코스로 선양과 단둥을 경유, 육로로 평양을 왕복하는 코스와 베이징에서 항공편을 이용, 평양을 가는 2개 코스로 운영, 관광비용은 선양-단둥을 거치는 육로 코스가 2천 위안(약 34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베이징 경유 코스는 이보다 약간 비쌀 것으로 보임.
- 중국은 북한 관광 중국인들이 현지에서 도박을 즐기는 것을 문제 삼아 2006년 중단했던 북한 단체관광을 2008년 9월부터 다시 허용했음.

### ● 북·중 접경 지역서 사린 검출(10/9, 아사히 신문)

- 중국군 특수 부대가 2008년 11월과 2009년 2월 랴오닝성 단둥 주변 북한과의 접경 부근의 공기 중에서 맹독성 물질인 사린을 검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중국 당국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9일 보도
- 신문에 따르면 중국측은 실험이나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음.
- 중국 특수 부대는 연습을 겸해서 정기적으로 공기 중의 화학 물질을 조사하는데, 북한측에서 바람이 불어 올 때 조사한 결과 우연히 1m<sup>3</sup> 당 0.015~0.03 $\mu$ g의 사린이 검출되었음. 이에 따라 중국군이 항공기로 독을 제거하는 물질을 살포했다는 정보도 있음.
- 사린은 검출될 당시와 가까운 시점에서 북한에서 살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신문은 전언, 사린은 독성이 강해 군사 연습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북한측이 무언가 실험을 했던가, 보관 또는 운송 중에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추정

### ● 中, 6자회담 추진에 자신감 피력(10/7, 신화통신)

- 중국 정부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회담을 계기로 6자회담 추진에 자신감을 피력, 8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은 7일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6자회담의 앞날에 자신감과 믿음을 갖고 있다”고 언급
- 앞서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도 평양에서 홍콩 방송과 인터뷰를 갖고 북한의 6자회담의 조건부 복귀 입장과 관련, 북미 양자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양자회담이 6자회담을 대체하지 못한다며 6자회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



● 北, 거주중인 화교·중국인 감시 강화(10/8, 조선일보)

- 중국이 유엔의 대북제재에 참여한 6월 이후 북한당국이 북한 거주 화교와 중국인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짐. 중국과 북한의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국가안전보위부가 최근 중국을 방문한 화교들을 ‘중국 정부 스파이’로 몰아 감시하는 경우가 많아 화교들이 아예 중국 방문을 자제하고 있다고 함.
- 특히 최근 중국에 다녀온 평양의 화교가 ‘남조선 간첩’이란 혐의로 보위부에 끌려갔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중국 방문을 위해 나진세관을 통과하는 북한 화교들의 수가 작년에 비해 3분의 1로 줄었다고 함.
- 북한 거주 화교들은 약 8000~1만명 정도로 추산되며 주로 평양·신의주·청진 등에 살고 있음. 이들은 대부분 중국에 가서 산 물건을 북한에서 팔아 생기는 수입으로 살기 때문에 북한주민들에 비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편임.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비난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 등 북한 당국의 통제에서 자유로웠음. 그러던 화교들이 최근 ‘최악의 탄압을 받고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통제와 감시를 받게 된 것은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참여한 데 대한 북한의 불만 표시라는 해석이 많음.
- 북한은 화교뿐 아니라 나진·선봉 경제특구에 진출한 중국기업 종업원들에 대한 통제도 강화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언, 최근 보위부는 이 지역의 중국기업에 파견된 중국인 종업원 2명을 북한 여성을 농락했다는 혐의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짐.

● 北, 홍루몽 개작, 북중친선 계승 의미(10/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7일 ‘북·중 친선의 해’ 행사의 일환으로 평양 ‘피바다가극단’에서 개작, 방북했던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함께 관람한 가극 ‘홍루몽’에 대해 북·중 친선관계 계승의 상징으로 평가
- 신문은 ‘조(북)·중친선의 귀중한 전통을 빛내어주는 역사적인 예술작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가극 ‘홍루몽’의 재창조는 수령님(김일성)께서 중국의 노세대 영도자들과 함께 장구한 기간에 걸쳐 마련한 귀중한 조·중 친선을 더욱 공고·발전시키려는 우리 당과 인민의 변함없는 의지를 보여준 중요한 계기로 됐다”고 주장
- 신문은 “문화교류는 가장 친근한 진정이 담긴 친선의 언어, 우호의 유대”라며 “지난해에 우리의 혁명가극 ‘꽃파는 처녀’가 중국을 순회 공연하고 올해에는 평양예술단, 조선영화음악단, 평양학생소년예술단이 중국을 방문하여 공연무대를 펼쳤으며 연극 ‘네온등 밑의 초병’과 가극 ‘홍루몽’이 재창조된 것은 중국인민과의 친선과 우호의 정을 귀중히 여기는 조선인민의 진실한 성의로 된다”고 주장



● 김영남, 中청년대표단 면담(10/7, 조선중앙통신)

-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7일 만수대의사당에서 루하오(陸昊) 공청단 제1서기를 단장으로 하는 중국 청년친선대표단과 환담을 나눴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 조선신보, 북·중관계에서도 北의 ‘핵보유’ 내세워(10/7, 조선신보)

- 북한과 중국간 수교 60주년 기념일에 즈음한 중국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은 북·중간 친선의 전통과 “변화된 국제환경 속에서 추구해야 할 공동의 이익을 확인하는 기회”였다고 조선신보가 7일 주장
- 신문은 ‘조·중 친선의 새로운 출발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북·중 수교 60돌은 “두 나라 협조관계의 새로운 출발점”이었다고 평가, 신문은 특히 “조선(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환경은 바뀌었다”며 “지역 내의 국제관계는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며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수 있다”고 주장
- 신문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역내에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더라도 “조선과 중국은 ‘전통적인 친선’에서 언제나 일치점을 찾을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변화된 환경에 맞게 협조관계를 새로운 차원에서 정립할 수 있다”고 주장

● 中, 北 나진항 부두 개발권 확보(10/7, 연합뉴스)

-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을 통해 오랜 염원이었던 압록강 대교 건설을 성사시킨 중국이 북한 나진항 부두 개발권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중국 다롄(大連)의 환경설비 제조 전문업체인 창리(創立)그룹이 나진항 1호 부두의 개발권을 따냈다고 연변(延邊)조선족자치주 훈춘(琿春)시 관계자가 7일 밝힘.
- 이와 관련 창리 측은 “이미 북한 최고위층으로부터 승인을 받았으며 중국 중앙 정부에 허가를 신청한 상태”라며 “(중국 정부의 허가 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밝힘. 또 “북한 측도 나진항 개발을 서두르고 있어 조만간 공사에 착수하게 될 것”이라고 전언
- 창리가 확보한 나진항 부두 개발권은 1호 부두의 2, 3호 정박지를 보수, 확장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권임. 38만㎡ 규모인 나진항은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不凍)항으로, 1호 부두 2, 3호 정박지 보수 및 확장 공사가 마무리되면 연간 100만t 규모의 하역 능력을 갖추게 됨.
- 창리 그룹은 나진항 1호 부두 전용권을 확보하는 대가로 중국 훈춘에서 나진항까지 93km의 도로를 개설해 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나진항 1호 부두 독점 사용권을 확보함에 따라 중국은 동북지방의 풍부한 지하자원을 물류비가 저렴한 동해를 통해 남방지역으로 운송할 수 있는 길을 확보하게 됐다. 이와 함께 창춘과 지린, 투먼 일대를 개방 선도구로 개발, 동북아시아 물류 거점으로 삼으려는 창-지-투(長-吉-圖) 개발 계획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임.





● **北비단도 특구 건설 지원나선 중국(10/7, 조선일보)**

-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이번 방북에서 적잖은 ‘선물 보따리’를 풀었는데, 공개된 것만 2억달러를 웃뎀. 무상 경제 원조와 기술·교육 분야의 지원 협정, 관광산업 관련 협정, 중국측 비용 부담을 전제로 한 신압록강대교 건설 등이 있음. 북한에 절실한 석유·식량 무상 원조는 5000만 달러 이상일 것으로 추정됨.
- 중국측이 1억5000만 달러 가량의 공사비를 부담하는 신압록강대교 건설도 북한 입장에서선 2002년 무산된 ‘신의주 특구’의 꿈을 되살릴 수 있는 카드임. 중국은 수년 전부터 연간 27억달러에 이르는 양국 교역 규모에 맞게 기존 압록강철교 외에 신압록강대교를 건설하고자 주장했으나 북한은 유사시 중국군의 진입 루트가 될 수 있어서 이를 반대해왔음.
- 북한이 입장을 바꿔 신압록강대교 건설에 합의한 것은 이 대교가 북한이 2006년부터 추진 중인 압록강 하구 ‘비단도(緋緞島) 자유무역지대’ 프로젝트의 기반 시설이 되기 때문임. 신압록강대교는 비단도를 지나감. 북한은 이 외에 관광 분야의 협력 협정을 통해 중국 관광객의 북한 관광 확대 길을 텃음.

● **원자바오 귀국, 평양시민 수만명 환송(10/6, 환구시보; 신화통신)**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2박3일간의 북한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6일 귀국길에 올랐음. 중국 신화통신과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날 평양 시민 수만명이 아침 일찍 가두로 나와 원 총리를 환송했다고 평양발로 보도

● **中, 북미회담 6자회담 대체 못한다(10/6, 평황(鳳凰)TV)**

- 원자바오 중국 총리를 수행해 북한을 공식 방문 중인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은 6일 평양에서 홍콩 위성방송인 평황(鳳凰)TV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밝힘.
- 친 대변인은 “중국은 북핵문제가 제기된 이후 줄곧 대화를 권고하고 촉진해왔다”면서 “과거 4자회담은 물론 6자회담에서도 북한과 미국이 건설적인 대화를 하도록 교량 역할을 해왔다”고 언급

● **원자바오, 마오쩌둥 장남 묘지에 헌화(10/5, 연합)**

-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북한 공식 방문 이틀째인 5일 평안남도 회창군 ‘중국 인민지원군 열사묘’에 있는 마오쩌둥의 장남인 마오안잉의 묘지를 참배
- 원 총리는 열사묘 가장 앞자리에 위치한 마오안잉의 묘지와 반신 흉상 앞에 꽃다발을 바친 후 “마오안잉 동지, 벌써 반세기가 지났습니다. 이제 조국은 강대국이 됐으며 인민은 행복합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라고 언급



## 라. 북·일 관계

- **日, 김정일 관계개선 발언에 기대·우려 교차(10/11, 연합)**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10일 3국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미 협상 이후 6자회담이 개최돼, 북한의 핵 폐기의 길이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일단 긍정 평가
  -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은 “(6자회담이나 북일 관계 개선의 전제가 되는) 북미 회담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보지 않고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할 수 없다”고 일단은 북미간 대화를 주시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음.
- **北, 일본과 양자대화 열망(10/9, 연합)**
  - 북한은 양자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일본과의 대화를 열망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중국을 방문 중인 오카다 가쓰야 일본 외상이 전언, 오카다 외상은 이러한 분위기를 최근 원자바오 총리를 수행, 북한을 다녀온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에게서 전해 들었음.
  -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은 북한이 미국과의 양자 대화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이후에 6자회담에 복귀할 의사를 가진 것으로 확신하는 모습이었다고 오카다 외상이 전언
- **北, 日서 핵 피폭 검사약 수입 시도(10/6, 요미우리신문)**
  - 북한이 지난 5월 지하 핵실험을 실시하기 한 달 전 일본 무역업체로부터 비밀리에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시약 수입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

## 마. 기타외교 관계

- **北대외문대표단, 이란·파키스탄 방문(10/8, 조선중앙방송)**
  - 전영진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한 대외문화연락위원회 친선대표단이 8일 이란과 파키스탄을 방문하기 위해 평양을 출발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
- **佛대북특사, 11월 9~10일 방북(10/6, 교도통신)**
  - 일본을 방문 중인 자크 랑 프랑스 대북담당 특사는 6일 교도(共同)통신과의 회견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11월 9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힘.
  - 랑 특사는 자신의 임명 경위와 관련,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에 프랑스가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 그러면서 그는 “당연히 관계국과 협력할 것이며, 단독 행동을 취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
  - 프랑스는 유럽 주요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북한과 국교를 맺고 있으며, 특사의 임무에는 국교 수립의 타당성 검토도 포함돼 있다고 교도통신은 보도



### 3. 대남정세

#### ● 북, '귀순주민' 또 송환요구(10/9, 연합)

- 북한이 10월 1일 동해상으로 귀순한 북한 주민 11명의 송환을 4번째로 요구, 통일부는 북한이 8일 동해 지구 군통신 채널을 통해 귀순자 전원의 송환을 요구했다고 9일 밝힘.
- 북측이 주민들의 송환을 공식 요구한 것은 지난 2일과 4일, 5일에 이어 이번이 네 번째임. 이에 따라 정부는 군 통신 채널을 통해 '11명 전원이 귀순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원한다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입장을 북측에 통보했다고 통일부는 전언

#### ● 개성공단 분양권 전매제한 폐지(10/9, 연합)

- 9일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 분양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0월 1일부로 개성공단 분양권에 해당하는 토지이용권을 공장 건물 등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까지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한 기존 계약 규정을 폐지, 다만 토지이용권을 양도받은 기업은 애초 분양 받은 업체의 업종을 승계해야 한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언
- 이에 따라 분양권을 따내고도 남북관계 경색, 불투명한 근로자 공급 전망 등을 이유로 공장 건설을 미루고 있는 업체들은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에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됐음. 또 기존 입주기업들은 경과기간(건물등록일로부터 2년) 제약 없이 언제든지 공장 건물이나 토지이용권을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수 있게 됐음.

#### ● 13일 신계사 복원 2주년 남북합동법회(10/8, 연합)

- 금강산 신계사 복원 2주년을 기념하는 남북불교도합동법회가 13일 오후 2시부터 금강산 신계사 대웅전에서 남북 불교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될 예정, 대한불교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는 2007년 10월 13일 금강산 신계사가 복원된 지 2년이 된 것을 기념하고 남북 불교 교류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합동법회를 열기로 북한의 조선불교도연맹(조불련)과 합의했다고 8일 밝힘.

#### ● 개성공단, 北에 969명 요청했는데 5명만 충원(10/8, 조선일보)

- 개성공단에 입주한 의류제조업체 A사. 올 초 개성공단에 입주한 뒤 북한 직원 70여명을 배정받았다.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턱없이 부족한 숫자여서 충원을 요청했지만, 1~2명씩 띄엄띄엄 왔음
-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음. 2007년 10월 이후 개성공단에 입주한 아파트형 공장 업체들(총 31곳)을 관리하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7일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31곳 중 25곳이 올 9월 말 현재 모두 969명의 근로자를 충원해달라고 요청, 그러나 이 중 실제로 충원된 5명 뿐임



- 북측은 충원 요구에 대해 “개성 시내의 인력 부족 현상 때문”이라는 설명만 되풀이함. 대북 소식통은 “이주가 어려운 북한 체제 특성상 다른 지역에서 노동력을 데려오기도 힘들다”며 “최근 평안도와 강원도 지역에서 당 충성도 등을 심사해 인력을 데려온다는 말이 나도는 데, 이것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언급
- **정부, 北 관련 컨테이너 4개 10월에 검색, 방호복 찾아내(10/5, 연합뉴스)**
  - 정부가 9월 부산항에서 북한과 관련된 ‘위해(危害) 물품’이 실린 것으로 의심되는 컨테이너 4개를 검색했던 것으로 5일 밝혀짐. 방호복은 방사능이나 화학물질 등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특수 의복으로 그 자체로는 ‘위해 물품’에 해당하지 않음. 그러나 방호복이 핵 시설이나 화학무기 공장 등에 사용되는 것이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북한연구센터 제공



## II. 동북아정세

### 1. 대북한 관련

####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 柳외교 “北진의 불분명..5자협의 중요”(10/8)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8일 북핵 문제와 관련,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방북 이후 북한의 진의가 아직 불분명한 만큼 5자간 협의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힘. 유 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관련국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충실한 이행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앞으로 긴밀한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함.
- 그는 또 “국제사회의 안보리 결의 이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은 대화 용의를 표명하면서도 핵개발 활동을 지속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함. 유 장관은 “북한이 2차 핵실험까지 한 상황에서 단순히 대화에 복귀한다고 해서 제재를 해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투트랙 어프로치’(제재와 대화)를 계속한다는 게 5자의 동일한 입장”이라며 “이미 2.13 합의와 10.3 합의는 의미가 없어진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말함.
- 조만간 성사될 것으로 예상되는 북·미 대화의 성격에 언급, 유 장관은 “북핵 6자회담이 미국과 북한이 합의한 것을 단순히 추인하는 것은 미국도, 5자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이런 패턴을 바꾸고자 하는 것이 5자의 입장”이라며 “이번 북·미접촉은 북한을 6자회담에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아무런 보상이 없다는 점을 미국이 여러 번 공개적으로 밝혔다”고 말함.
- 유 장관은 이어 “북·미 양자접촉을 6자회담 틀 내에서 한다든지,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오기 위한 것 등으로 북·미 양자접촉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것도 이런 뜻”이라고 설명함. 그는 “이번주 관련국간 정상 외교를 통해 현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의 대응방안 협의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소개함.
- 유 장관은 중국의 대북 원조가 유엔 제재결의에 위배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중국은 1874호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다만 1874호는 인도적인 지원과 개발 협력은 제외하고 있다”고 상기시켰음. 그는 정부 당국이 최근 부산신항에서 북한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컨테이너를 검색한 것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 이행과정의 하나라고 보면 될 것”이라며 “조만간 관계기관에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함.





- **中, 北-美 대화 6자회담 재개 도움 희망(10/8)**
  - 중국은 7일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가 6자회담의 재개를 이룩하는 결과를 가져오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힘. 6자회담의 중국 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은 중국 외교부 웹사이트에 올린 성명에서 “중국은 6자 회담의 협상 과정이 진척되는데 도움을 주는 어떠한 조치에도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힘.
  - 우 부부장은 북한이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길을 여는 긍정적인 진전이 라고 평가하면서 그런 양자대화는 6자회담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함. 그는 “6자회담 구도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대화가 있다. 중국은 항상 모든 관련 당사국 간 양자대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하고 “북-미 대화가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음.
  - 평양 당국은 5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가 방북한 가운데 북-미간의 직접대화가 진전을 이룬다면 6자회담에 참가할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힘. 북한은 지난 4월 6자회담에 더 이상 참석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었음. 미국은 북한의 조건부 6자회담 복귀 입장 표명에 대해 북한이 6자회담으로 돌아온다면 북한과의 양자회담을 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히면서 (회담의 궁극적) 목표는 북한 측이 핵무기를 완전 포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함.
  
- **스타인버그 “대북제재식 이란제재 가능”(10/7)**
  -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와 같은 강력한 제재가 이란에 적용될 수 있다고 밝힘. 스타인버그 부장관은 이란 핵문제와 관련한 미 상원 금융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상당한 성공”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이 말함.
  - 그는 “(대북제재 결의는) 매우 중요한 조치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수단”이라면서 “이란 문제에서도 복제될 수 있다”고 말해 대북제재와 같은 강력한 경제제재를 담은 이란관 제재가 이뤄질 수 있음을 내비침. 이와 관련, 그는 “외교와 협상에 좀 더 신뢰를 두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포용전략은 중요하다”고 설명, 이란과 북한 등에 대한 포용전략이 제재를 위해서라도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보였음. 그는 “우리의 포용은 그들(중.러)과의 협상력을 강화시켜 준다”고 말함.
  
- **日, 北 6자회담 조건부 복귀 의사 환영(10/6)**
  - 일본 정부는 북한의 6자회담 조건부 복귀 선언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힘.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을 방문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양자대화를 가진 뒤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오카다 가쓰야(岡田克



也) 일본 외무상은 6일 6자회담이 곧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 오카다 외무상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지금까지 6자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으나 성명에서 특별히 6자회담이라는 용어를 언급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강조함. 그는 이어 “북·미 양자대화는 6자회담에 앞서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6자회담의 틀 내에서 엄격히 이뤄져야한다”며 “6자회담이 곧 재개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음.

### ● 러시아 “北조건부 6자회담 복귀 발언 환영”(10/6)

- 러시아 정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회담에서 ‘조건부 6자회담 복귀’ 입장을 밝힌데 대해 일단 환영을 표함. 알렉세이 보로다브킨 러시아 외무부 아태담당 차관은 6일 관영 이타르타스 통신과 인터뷰에서 “북한이 6자회담 협상으로 돌아올 준비가 돼 있다는 데 대해 환영하며 이를 더 미룰 필요가 없다”면서 즉각적인 협상 재개를 촉구함.
- 러시아 측 6자회담 대표인 보로다브킨 차관의 이 발언은 전날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 김 위원장 간 회담 결과에 대한 평가로 러시아 정부도 다른 관련국처럼 일단 북한이 오랜 침묵을 깨고 조건부 6자회담 복귀를 언급했다는 점을 높게 산 것으로 보임. 그러나 러시아 당국도 이런 북한의 긍정적 자세가 북핵 문제에서 근본적 태도 변화인 동시에 비가역적 비핵화나 즉각적인 6자회담 복귀 선언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짐.
-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산하 극동문제연구소 알렉산드르 보론초프 한국·몽골 과장은 “북한은 자신들의 위험한 행동의 대가로 경제적 지원을 바라지만 북한으로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다”며 “북한의 안전은 미국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끊임없이 미국에 대화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함. 미하일 마르젤로프 러시아 연방의회(상원) 외교관계 위원회 위원장도 “북한이 긍정적 신호를 보낸 것을 환영하지만, 문제는 다음에 어떤 구체적 행동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함.
- 그런가 하면 러시아 일각에서는 이번 원자바오 총리 방북을 계기로 북·중 관계가 밀착되면서 남·북한과 중국, 미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이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 러시아가 북핵 문제에서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이와 관련 러시아 기관지 로시스카야 가제타는 이날 만약 4자회담이 이뤄지면 6자회담 메커니즘은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러시아와 일본은 동북아시아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함. 신문은 북한이 6자회담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싶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왜 러시아까지 제외하려고 하는지는 이해할 수 없다며 러시아는 그동안 북한을 도발하지 않으려고 조심했다고 전함.



### ● 日전문가 “北 목적은 북·미협상”(10/6)

-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인 히라이와 순지(平岩俊伺) 시즈오카(静岡) 현립대 교수(현대조선론)는 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자회담 복귀 가능성 언급과 관련, “북한이 어디까지나 협상의 주무대를 북·미협상으로 보고 있음이 선명해졌다”고 분석함. 그는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 기고에서 이같이 말하고 “김 위원장이 6자회담 복귀 준비가 돼 있다는 것도 북·미협상을 실현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고 강조함.
- 히라이와 교수는 이어 “북한은 이미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해제할 핵 폐기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만큼 북·미협상이 이뤄지면 (최종적으로) 평화 협정 체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함.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6자회담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는 틀 이라기보다 북·미간에 합의한 것을 국제적으로 인지하도록 하는 장으로 삼으려 하고 있으며, (김 위원장의 발언도) 그런 흐름을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음.

### ● <日언론, 김정일 6자회담 발언 주목>(10/6)

- 일본 언론은 6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의 전날 회담에서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 회담을 언급한 데 대해 비상한 관심을 갖고 신속하게 보도함.
- 그러면서 일본 언론은 대체로 김 위원장의 언급이 북·미대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고 곧바로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고 전망함.
- 교도(共同)통신은 중앙조선통신과 신화통신을 인용해 대화 내용을 속보로 전한 뒤 “북한이 지난 4월 6자회담 이탈을 표명한 이후 최고 지도자인 김 위원장이 협의 복귀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고 평가함. 그러면서 통신은 “하지만 북한은 미국과의 양자협의를 우선 하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이번 원 총리와 의 회담에 따라 곧바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될지는 유동적”이라고 지적함.
- 아울러 통신은 “김 위원장의 발언은 ‘북한과의 직접 대화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해 한다’는 미국측의 의향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음. NHK도 “김 위원장의 이번 발언은 그동안보다 6자회담 복귀로 한걸음 다가선 것이지만,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우선하겠다는 생각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해석함.
- 방송은 “원자바오 총리로서는 이번 방북을 통해 새로운 경제 협력 실시 및 북한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확인하는 등 김 위원장으로 부터 어느 정도 유연한 자세를 끌어냄으로써 6자회담의 의장국으로서의 존재감을 일단 확보하게 됐다”고 평가함.
- 아사히(朝日)신문도 “북한이 6자회담 이탈을 표명한 이후 김 위원장이 회담 복귀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라면서도 “그러나 북·미



협의를 최우선한다는 자세는 변화가 없어서, 바로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질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지적함.

- 지지(時事)통신은 “지난 9월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방북했던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의 회담에서는 ‘양자간, 다자간 대화’을 언급했지만, 당시에는 다자간 대화가 6자회담을 포함하는지 불명확했다”며 “그러나 김 위원장의 이번 언급으로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북·미대화 움직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함.

### ● 美 “6자회담이 최선..검증가능 비핵화돼야”(10/6)

- 미국은 5일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촉구하면서 6자회담이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함.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원자바오 중국 총리와의 회담에서 6자회담 조건부 복귀 용의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말함.
- 켈리 대변인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북한과의 대화의 핵심 목표로 남아 있다는 점에 (한·미·일·중·러) 5자 간에 의견이 일치돼 있다”고 밝힘. 그는 “5자 간에는 비핵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6자회담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점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결의 1718호 및 1874호의 완전한 이행을 다할 것이라는 점에도 의견이 일치돼 있다”고 말함.
- 그는 이어 “예전에도 밝혔듯이 우리와 6자회담 참가국들은 되돌릴 수 없는 조치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이끄는 대화에 북한이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촉구함. 켈리 대변인은 특히 “미국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의 길을 견도록 설득하기 위해 6자회담의 틀 내에서 북한과 양자대화를 가질 용의를 유지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함.
- 그는 “미국은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해 동맹국 및 6자회담 파트너들과 긴밀한 조율을 벌이고 있다”면서 “미국은 평화적 방법을 통한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는 2005년 9월의 (9.19) 공동성명 목표 이행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함.

### ● “北, 현재는 협상에 상당한 관심”<美전문가>(10/6)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5일 북·미대화 결과를 보고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을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밝힌데 대해 존 페퍼 미 정책연구원 외교정책포커스 소장은 북한이 현재 협상에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함. 진보성향인 페퍼 소장은 이날 김 위원장의 언급이 보도된 후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이 시점에서 협상에 꽤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함.
- 페퍼 소장은 “북한은 양자 및 다자대화에 있어서 우월한 협상 위치를 갖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이는 북한





이 2차 핵실험까지 실시하고, 우리나라 농축도 성공 단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면서 협상력을 높여 왔다는 분석과 맥을 같이하는 것임. 그는 “이번에 북한이 6자회담을 언급한 것은 북한이 미국과 대면 접촉을 위해 마주 앉고 광범위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비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밝힘.

- 그는 이어 “북한은 중국이 다자회담에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래서 중국이 듣고 싶은 것, 즉 다자협상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말해 준 것”이라고 분석함. 그는 하지만 “다자회담은 지연전술이라는 회의가 제기돼 왔고, 일본의 참여로 6자회담에 대한 회의도 있었다”면서 “그러나 일본의 새 정부 출범 후 일본의 입장이 보다 유연해 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함.
- 그는 김 위원장의 이날 언급에 대해 “양자대화를 통해 그들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고 다자회담이 양자의 합의를 확인해주는 것이라면 다자회담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함.

#### 나. 북·미 관계

##### ● “北美, 이달중 제3국서 실무급 대화 가능성”(10/10)

- 북한과 미국간 양자대화가 이달중 “매우 빠른 시기에” 제3국에서 스티븐 보즈워스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보다 “낮은 급의 실무”선에서 먼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래리 닉시 박사가 주장했음.
- 닉시 박사는 보즈워스 특별대표가 선불리 북한을 방문하기에 앞서 성 김 특사나 다른 관리들이 북한과 실무적인 차원의 대화를 먼저 가질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전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보즈워스 특별대표를 평양에 보낼지를 결정하기 전에 북한과 양자 대화에서 어떤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음.

##### ● “北리근, 26~27일 방미 추진”(10/9)

- 북한의 리 근 외무성 미국국장이 26~27일 미국 서부에서 열리는 ‘동북아시아협력대화(NEACD)’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방문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됨. 외교소식통은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한의 리 근 외무성 미국국장이 NEACD 참석차 이달 말 미국을 방문하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미국이 비자를 발급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말함.
-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NEACD를 계기로 23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리 근 국장이 방미하겠다는 계획을 미국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며 “미국이 아직 비자를 발급하지 않아 구체적 방미 기간 및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함. NEACD는 미 캘리포니아 대학 산하 ‘세계분쟁 및 협력연구소(IGCC)’가 남북한과 미·일·중·러 등 6자





회담 참가국 외교·국방부 관료와 학자들을 초청해 개최하는 다자간 포럼으로, 올해는 26~27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차로 2시간 정도 떨어진 라호야에서 열림.

- 이번 포럼에는 미국 측에서 조 도노반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가, 한국 측에서 허 철 외교통상부 평화외교기획단장이 각각 참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외교소식통들은 리 근 국장의 이번 포럼 참가를 계기로 북·미 당국자간 회동이 이뤄질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음. 특히 스티븐 보즈워스 미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평양 방문을 앞두고 리 국장이 NEACD 전후로 뉴욕이나 워싱턴 D.C.를 방문, 북·미간 실무급 회동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 앞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8일 주미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한과 미국간 대화가 애초 예상과 달리 중하위급에서 1개월 안에 이뤄질 것이며 미국측에서는 보즈워스 특별대표보다 낮은 직급의 인사가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함.
- 2006년 4월 일본 도쿄(東京)에서 열린 NEACD에는 미국과 북한의 6자회담 수석대표였던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참가함. 동북아 안보에 관한 각국의 시각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반관·반민 성격의 안보대화인 NEACD는 동북아 국가간 대화를 통한 상호이해·신뢰구축·협력증진을 목적으로 1993년 7월 출범함.

#### ● 美워싱턴서 북한인권백서 영문판 발표회(10/8)

- 북한인권정보센터(이사장 김상현)는 8일 미국 워싱턴 소재 존스홉킨스대학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북한에서의 인권침해 실태를 종합한 ‘2009 북한인권백서(2009 White Paper on North Korea Human Rights)’ 영문판 발표회를 개최함. 북한인권센터의 김상현 이사장과 윤여상 박사는 발표를 통해 북한인권백서 영문판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는 한편 센터가 운영하는 북한인권 피해사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과 주요 내용, 자료 이용방법 등에 관해 설명함.
- 이 자료에 따르면 탈북자를 통해 수집된 1만1천206건의 인권피해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북한에서 인권문제가 발생하는 장소는 보위부 및 안전부의 조사구류시설이 18.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정치범 수용소(12.6%), 공공장소(10.3%), 피해자의 집(6.9%), 교화소(5.8%), 단련대(5.1%), 피해자의 일터(2.6%) 등의 순으로 나타나 국가 구금시설에서의 인권문제 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음.
- 또 북한의 인권문제 발생원인은 국경관리 범죄가 33.7%로 가장 높았고 정치범(18.7%), 형사범(14.1%), 연좌제(7.4%), 생활사범(7.0%), 경제범(2.7%) 등으로 나타남. 북한인권정보센터는 ‘2009 북한인권백서’ 영문판을 미국내 주요 연구기관에 발송하는 한편 개인에게는 유료로 판매하고 있음.



● “북핵, 월가 방식으로론 해결 안돼” <美전문가>(10/8)

- 미국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인 조엘 위트 전 국무부 북한담당관은 북한 핵 문제는 월스트리트에서 기업을 합병하거나 매수하는 것과 같이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고 밝힘. 미 컬럼비아대 동아시아재단 선임 연구원인 위트 전 담당관은 7일(현지시간) 자신이 최근 발표한 ‘미국의 대북 전략’ 보고서와 관련해 컬럼비아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 핵 문제는 테이블에 돈을 쌓아놓고 ‘이 정도면 되겠냐’는 식의 일괄타결 접근법으로 풀릴 수 없다”며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는 거래식 접근법 대신 정치관계의 변화 등을 포함하는 변화적 접근법이 요구된다고 밝힘.
- 그는 변화를 이끄는 이런 접근법은 북·미 관계의 개선을 통해서만 성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을 뒀야 한다고 강조하고, “한국, 일본 등은 뒤에 처져있는데 미국과 북한 관계만 개선될 수는 없다”며 관련 국가들과 북한의 관계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음.
- 그는 특히 “북한에 대한 제재는 경제적으로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등 그동안 통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면서 이번이 북핵 문제 해결의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는 인식 아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함.
- 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는 정치적 권한이 약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는 김 위원장이 여전히 많은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북한이 핵 무기를 더 확대하기 전인 지금의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면서 “북한에 2012년 강성대국 목표가 핵무기 구축이 아닌 미국과의 향상된 관계를 통해 가장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켜야 한다”고 말함.
- 위트 연구원은 앞서 보고서에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우선 1단계로는 북핵의 완전 제거보다는 핵 추가개발과 확산을 중단시키고 점진적으로 핵 능력을 후퇴시킨다는 목표 아래 평화적 목적의 핵 이용 인정 및 연락사무소 설치 등과 같은 정치적 관계 정상화를 위한 조치, 인도적·경제적 지원과 인적 교류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함. 그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2단계에서는 북·미 양측이 핵폐기 일시 등의 이정표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밝힘.
- 위트 연구원은 다음달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한·중·일 방문에서 북핵 문제의 긍정적 해법이 도출될 수 있을지를 묻는 질문에는 “예측하고는 싶지 않다”면서도 “정상들이 직접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것은 충충시하 관료들을 거쳐 이뤄지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정책 등에 미치는 영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함.
-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로버트 칼린 전 국무부 정보조사국 담당관도 “북핵 문제는 적대적인 입장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고, 그렇



다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은 가장 위험하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함.

### ● “북·미회담서 원자로 재가동 방지가 우선 과제”(10/8)

- 미국은 북·미 양자회담에서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해 플루토늄을 추가 생산하는 것을 막고 북한으로부터 핵무기 실험과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시험에 대한 모라토리엄(유예)선언을 받아내는 것을 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미국사회과학원의 리언 시걸 박사가 주장함.
- 북한이 중국측에 조진부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정확히 예측했던 시걸 박사는 북·미 양자회담이 이달중 열릴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같이 제시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8일 보도함. 시걸 박사는 또 “북한은 미국에 대북 적개심이 없다는 증거를 확인하고 싶어한다”며 “미국은 대북 제재를 일부 해제하고 국교 수립과 평화체제관련 논의 등을 시작하면서 미국의 진심을 내보일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북·미 양자회담에서 미국과 북한간 주고받을 예상 목록을 제시함.
- 그는 또 북한이 미국의 대북관계 개선 의지의 진정성을 시험하기 위해 경수로 제공 문제를 예상보다 일찍 제기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고 방송은 전함. 특히 그는 “미국이 북한과 국교수립, 평화체제, 경수로 문제 등을 편안하게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일본과 한국이 6자회담 이전에 열리는 이러한 북·미간 양자협상을 반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만약 반대한다면 북한은 핵시설을 재가동하고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적 행동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음.
- 그는 중국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방북 때 경제지원 약속에 대해 “중국은 대북지원을 비롯한 경제적 개입을 통해서만 북한 내부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고 있다”며 “미국도 북한에 경제적인 개입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함. 그는 북·미간 신뢰구축을 위해 양국간 문화교류를 비롯한 민간 차원의 접촉을 늘려야 한다며 “북한 조선국립교향악단의 미국 공연이 성사되면 북·미 대화를 위해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함. 한편 미 국무부 필립 크롤리 공보 담당 차관보는 7일(워싱턴 현지 시간) 북·미 양자회담에 대해 “수주내에 열릴 수도” 있다고 말함.

### ● 美 “北언급 달라졌지만 상황진전 보고 판단”(10/8)

- 미국은 7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조진부 6자회담’ 복귀 시사 발언에 대해 “과거와 다른 언급”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앞으로 상황진전에 따라 이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힘. 필립 크롤리 미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포린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한 미국측 입장을 묻는 질문에 “북한이 최근 수주, 수개월간 했던 것과는 다른 언급”이라고 평가함.



이는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 이후 나온 김 위원장의 언급에 대한 미국 정부 관계자의 첫 직접적인 반응임.

- 하지만 크롤리 차관보는 “명백히 우리는 앞으로 (상황이) 진행됨에 따라 이것을 판단할 것”이라고 김 위원장의 언급에 대한 최종 평가는 유보하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함. 크롤리 차관보는 북·미 양자대화 관련, “아무런 결정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수주 내에 열릴 수 있는 어떤 (북한과의) 대화의 목적도 북한이 6자회담으로 되돌아 올 의지가 있는지 여부와 그들이 자신들이 한 약속에 있는 의무를 이행할 의지가 있는지를 시험해 보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함. 그는 북·미대화가 수주 내에 열린다는 것이 아니라 만일 수주 내에 열린다면 미국이 그런 북한의 의지를 시험해 볼 것이라는 말이라고 부연함. 그는 이어 “우리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북한의 말이 아닌 북한의 행동에 의해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함. 그는 “북한이 6자회담으로 돌아오도록 만드는 도구로 양자적 기반에서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해 왔다”고 설명함.
- 크롤리 차관보는 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다음달 중순 한·중·일 방문 전 북·미대화가 열릴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특정한 시간표를 두고 싶지 않다”면서 “우리가 (시점을) 맞출 필요는 없다”고 말함. 그는 “어떤 대화도 북한의 6자회담 복귀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적절히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파트너들과 긴밀한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함. 그는 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다음주 방중과 관련, “캠벨 차관보가 아태지역 공관장들과의 중요한 회의를 위해 오늘 호놀룰루로 떠났으며, 이후 도쿄와 베이징에 들를 예정”이라고 전함. 그는 “우리는 이 문제(북핵 문제)에 대해 지역의 파트너들과 계속 논의할 것”이라면서 “우리는 (협의 결과를) 기다리고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음. 국무부 당국자는 캠벨 차관보의 중·일 방문에 마이클 쉬퍼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부차관보 등도 동행할 것이라고 전함.

#### ● 美당국자 “북·미대화 형식, 대표 등 협의중”(10/8)

- 미국은 북·미대화를 결정할 경우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누구를 대표로 보낼지 등에 대해 6자회담 참가국들과 협의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미 국무부 당국자는 7일 연합뉴스 기자 등과 만난 자리에서 북·미대화 결정이 늦어지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아직 아무런 결정이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양자대화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5자간에 아무런 이견이 없다”고 말함.
- 이 당국자는 “다만 어떤 형식이 가장 좋은지, 또 대화에 나서는 사람은 누구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어떻게 하는 것이 6자회담 재개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최선의 기회를 만들 것인지 등에 대해 파트너들과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해 구체적인 대화 형식 등의 문제를 두고 관련국간 협의 절차가 진행중임을 시사함. 이와 관련, 미국은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북할 경우 북측에서는 외교 정책 실세인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이 카운터파트로 나와야 한다는 점을 요구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또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격을 낮춰 성 김 북핵특사의 방북이나, 베이징 또는 쿠알라룸푸르 등 제3의 장소에서의 북·미 간 접촉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짐.

#### ● “北입장변화, 美제재효과 입증한 것”[전문가들](10/7)

- 북한은 비핵화 협상 재개를 미끼로 미국을 양자회담 테이블로 끌어들여 하고 있지만, 워싱턴에서는 이를 미국의 대북 강경 기조가 효과를 거뒀다는 증거로 보는 시각이 많다고 전문가들이 6일 지적함. 북한의 최근 입장변화가 미국의 강력한 지원 아래 이뤄진 유엔의 대북 제재가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기대보다 훨씬 큰 효과를 내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 조지 부시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담당했던 빅터 차 조지타운대 교수는 오바마 행정부가 대북 제재라는 매우 강력한 도구를 가졌으며, 이것이 더 강력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고 지적함. 차 교수는 북한이 회담 테이블로 복귀하면 제재 중 일부가 풀리길 바랄 것이라면서 제재의 효용성을 인식하고 있는 오바마 행정부에 북한의 이같은 요구가 진정한 외교적 도전이 될 것이라고 내다봄.
- 이와 관련,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오바마 행정부의 영향력 있는 당국자들이 사적인 자리에서 대북제재를 완화할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함. 클링너 연구원은 대북정책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과 당국의 내부적인 시각이 거의 같으면서 북한을 부드럽게 대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함.
- 그는 현재 대북 제재는 유엔 결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다른 나라의 지지를 얻지 못했던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의 북한 고립 노력에 비해 훨씬 큰 무게감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북한과 합법적 거래를 하고 있던 기업들조차 모르는 틈에 공범이 될까 봐 더욱 조심하고 있다고 설명함.

#### 다. 중·북 관계

##### ● 中충칭-北평양 관광노선 개설(10/9)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방북 당시 중국과 북한이 체결한 관광 협약에 따라 중국 충칭에서 평양을 관광할 수 있는 새로운 관광노선이 개설된다고 중경상보(重慶商報)가 9일 보도함. 신설되는 충칭-평양 관광노선은 4일 코스로 선양(瀋陽)과 단둥(丹東)을 경유, 육로로 평양을 왕복하는 코스와 베이징에서 항공편을 이용, 평양을 가는 2개 코스로 운영됨.





- 관광비용은 선양-단둥을 거치는 육로 코스가 2천 위안(약 34만원) 가량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베이징 경유 코스는 이보다 약간 비쌀 것으로 보임. 중국은 북한 관광 중국인들이 현지에서 도박을 즐기는 것을 문제 삼아 2006년 중단했던 북한 단체관광을 지난해 9월부터 다시 허용함. 앞서 중국은 지난 6월 북·중 변경지역이 아닌 내지(內地)에서는 처음으로 상하이에서 민간관광단을 모집, 북한관광을 한 데 이어 8월 광둥(廣東)에서도 20명의 관광객을 모집, 북한관광에 나섰다.

#### ● “북·중 접경 지역서 사린 검출”(10/9)

- 중국 군(軍) 특수 부대가 지난해 11월과 올 2월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 주변 북한과의 접경 부근의 공기 중에서 맹독성 물질인 사린을 검출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중국 당국 관계자의 발언을 인용해 9일 보도함. 신문에 따르면 중국측은 실험이나 사고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감시를 강화하고 있음.
- 중국 특수 부대는 연습을 겸해서 정기적으로 공기 중의 화학 물질을 조사하고 있음. 북한측에서 바람이 불어 올 때 조사한 결과 우연히 1m<sup>3</sup>당 0.015~0.03 $\mu$ g의 사린이 검출됨. 이에 따라 중국 군이 항공기로 독을 제거하는 물질을 살포했다는 정보도 있음. 사린은 검출될 당시와 가까운 시점에서 북한에서 살포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신문은 전함.
- 사린은 2차대전 이전 독일에서 전쟁용으로 개발됐던 것으로 살상 능력이 매우 높음. 1995년 일본에서 발생한 옴진리교에 의한 지하철 사린 가스 살포 사건에서 많은 사상자를 낸 바 있음. 사린은 독성이 강해 군사 연습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북한측이 무언가 실험을 했던가, 보관 또는 운송 중에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추정함. 그러면서 신문은 단둥과 가까운 북한 신의주에는 군사 목적으로 의심되는 화학공장이 있다고 지적함.

#### ● 中, 6자회담 추진에 자신감 피력(10/8)

- 중국 정부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회담을 계기로 6자회담 추진에 자신감을 피력함. 8일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은 7일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6자회담의 앞날에 자신감과 믿음을 갖고 있다”고 말함.
- 우 부부장의 이런 발언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건부 6자회담 복귀 의사에 대해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미국 등 참가국들에 6자회담의 전망이 어둡지 않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설 것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됨. 우 부부장은 “북·미간 양자 회담은 6자회담 틀 내에서의 중요한 절차로서 북·미 회담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중국은 6자회담에 도움이 되는





전과되면서 국제사회와 북한 주민들에게 그의 건강과 통치력의 견재를 재확인해주는 구실을 톡톡히 함.

- 북한 입장을 대외적으로 비공식 대변하는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가 김 위원장의 공항 영접을 묘사하면서 그가 환영식장을 “기운찬 발걸음으로” 가로질러 원 총리의 특별기로 다가갔다고 말하거나 그가 원 총리의 무개차가 공항을 떠나는 것을 전송한 뒤 “간부들에게 몇 가지 지시”를 하는 등 “정력적인 활동모습”을 보여줬다고 표현한 것은 북한 당국의 의도를 엿보게 하는 것임.
- 원 총리의 방북을 통해 김 위원장은 셋째아들 정은(정운)의 후계구도를 더욱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도 제기됨. 북한 당국이 중국측에 정은의 후계내정 문제를 언급했거나 정은이 이번 원 총리의 행사에 김 위원장과 함께 동행했을 가능성은 낮지만, 내부적으로 정은의 후계 당위성 및 우상화 선전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만큼 중국 대표단이 관련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접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김정은 후계체제의 구축을 지휘하고 있는 장성택 국방위원 겸 노동당 행정부장이 지난 5월 중국 지도부에 정은의 후계 내정을 통보하기 위해 방중했으나 지도부 면담을 못한 채 귀환했다는 후문임.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자 시절에도 김일성 주석은 1982년 방중해 후야오방(胡耀邦) 당시 공산당 총서기 등 중국 지도부에게 자신의 후계자로 김 위원장이 결정됐음을 공식 통보했고 이듬해 김 위원장은 후 총서기의 초청으로 처음 중국을 방문했었음.
- 장용석 평화문제연구소 연구실장은 “원자바오 총리가 중국과 북한 간 우호관계를 대대손손 계승하자고 했는데 직접적으로 경제원조 교환문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북·중 협력 합의로 구체화됐지만, 이것이 국제사회에 주는 메시지의 하나로 ‘중국은 북한의 정치적 안정을 최우선 고려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들 수 있다”고 말함.
- 즉 “현 김정일 체제를 포함해 향후 후계구도, 권력승계 과정까지 북한을 지지함으로써 북한의 정치적 안정을 중시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임. 이런 점에서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원 총리의 방북을 “조·중친선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기록”할 것이라고 평가한 것도 북·중수교 60주년을 계기로 한 일반적인 북·중관계 강화론을 넘어 예사롭지 않은 뜻을 담은 것으로 보임.
- 북한 김영일 총리와 중국 원자바오 총리는 총리회담에서 “전통적인 조·중친선은 정세가 바뀌고 세대가 교체된다고 하여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북한 언론매체들은 전했고, 원 총리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에서 북·중 우호관계의 “대대손손 계승”을 강조했다. 중국의 신화통신이 보도하는 등 북·중 양측은 원 총리 방북기간 내내 ‘대를 이은 친선’을 한 목소리로 외침.







만큼 북한 당국 차원이나 장 부장 개인 차원에서나 중국과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함.

### ● 中 “6자회담 반드시 지켜야”(10/6)

- 중국은 북한의 6자회담 조건부 복귀 입장과 관련, 북·미 양자회담이 6자회담을 대체하지 못한다는 기존 입장을 분명히 함. 홍콩 위성방송인 평항(鳳凰)TV는 이날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를 수행해 북한을 공식 방문 중인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이 평양에서 인터뷰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고 보도함.
- 중국은 북·미 양국이 양자회담을 통해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6자회담이란 틀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의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 왔음. 친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북핵문제가 제기된 이후 줄곧 대화를 권고하고 촉진해왔다”면서 “과거 4자회담은 물론 6자회담에서도 북한과 미국이 건설적인 대화를 하도록 교량 역할을 해왔다”고 말함.
- 그는 또 “우리는 북한과 미국이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상호 관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면서 “이는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함. 이에 앞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5일 저녁 원 총리와 회담을 갖고 미국과의 양자회담 진전에 따라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을 진행할 용의가 있다고 말함.
- 다른 홍콩 신문과 방송들도 친 대변인이 이날 평양에서 홍콩 기자들을 상대로 김 위원장과 원 총리의 회담 결과를 브리핑하고 질문에 대답했다고 전함. 친 대변인은 “원 총리와 김 위원장이 비교적 장시간 회담을 했다”면서 “중조관계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추진 문제를 놓고 깊이 있는 의견 교환을 했으며 중대 공동 인식에 이르렀다”고 설명함.
- 그는 “김 위원장이 북·미 양자회담을 통해 북·미간 적대관계를 반드시 평화관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북한은 북·미회담 상황에 따라 6자회담을 비롯한 다자회담을 진행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함. 친 대변인은 홍콩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북한은 양자 및 다자회담을 통해 비핵화 등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한다”면서 “중국은 북핵문제와 비핵화를 협상과 평화적인 방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말함.
- 그는 “6자회담은 이런 목표를 실현하는데 아주 효과적인 시스템이며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면서 “중국은 각방이 6자회담의 틀 안에서 다자회담의 시스템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진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함. 친 대변인은 “북·미회담과 다자회담은 아직까지 일정이 마련되지 않았다”면서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적극적인 진전이 있었으며 북한은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함.
- 그는 북·미회담에 대한 중국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반도 비핵화







이어 압록강 대교 건설에 합의한 것은 대외 정책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시그널”이라고 분석함. 그는 “곧 새로운 경제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얘기가 북한 내부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며 “북한도 경제를 재건하려면 대외 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이며 대외 개방의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음.

### ● <원자바오의 訪北 선물 보따리는>(10/6)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5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의 평양회담에서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북핵 6자회담 복귀 용의를 표명하자 원 총리가 준비해간 선물 보따리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음. 원자바오 총리를 비롯한 중국 정부 대표단은 4일 평양의 만수대의사당에서 북한과 ‘경제원조에 관한 교환문서’ 등 다양한 협정, 합의문, 의정서, 양해문 등에 조인함.
- 북-중간에 조인된 각종 합의문에는 중국측의 숙원이던 압록강 대교 건설이 포함됐고, 무엇보다 ‘경제원조 교환문서’가 눈길을 끌었음. 이 경제원조 관련 문서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의 대북 무상원조 제공이라는 점은 쉽게 짐작이 감.
- 장위(姜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9월 29일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북한에 가능한 범위 내에서 무상원조를 계속해 왔다”고 말해 원 총리의 방북 기간 상당한 규모의 무상원조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함. 중국은 이미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지난 1월 21-24일 방북,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했을 때 식량과 석유의 무상원조를 다짐했으나 북한이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으로 인해 북-중 관계가 냉랭해지자 이의 실행을 연기해온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의 이번 대북 무상원조 규모는 2천만달러선으로 추정되고 있음.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들에 따르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이 제공했던 2천400만달러와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선물로 내놓은 1천500만달러의 중간선이라는 관측임. 후 주석이 지난 2005년 방북 때 시찰한 평안남도 대안친선유리공장은 중국이 무상원조한 2천400만달러를 들여 건설된 것임. 시진핑 부주석이 작년 6월 평양방문 때 선물로 항공유 5천t과 1억위안을 북한에 제공했는데 이는 총 1천500만달러 규모였다고 소식통들은 말함.

### ● <김정일-원자바오 회담, 核협상에 돌파구>(10/6)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5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의 평양회담에서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북핵 6자회담 복귀 용의를 밝힌 것은 북핵 협상에 돌파구를 여는 중대 발표라고 할 수 있음. 김정일 위원장이 이날 미국과 협상 진행에 따라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말함으로써 북한이 고립에서 벗어나 국제사



회에 단계적으로 진출하기 위해 핵 협상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선언했다는 분석임.

- “6자회담 재개 절대 불가”를 외쳐오던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을 통해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힘으로써 작년 12월이후 거의 일년간 중단됐던 6자회담은 재개에 유리한 진전을 가져왔지만 아직 재개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 중국의 한반도전문가들의 시각임.
- 류장용(劉江永) 칭화(淸華)대 국제문제연구소 교수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조건부로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힌 것은 청신호이긴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어 곧바로 6자회담이 재개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함. 그러나 북한이 강력 희망해왔으나 미국 측이 까다로운 조건들을 달았던 북-미 양자회담이 김 위원장의 ‘선언’을 계기로 추진력을 얻게 됐음.
- 한국과 미국은 김정일 위원장의 발언이 진일보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북-미 양자대화에 무게를 뒀다며 북한의 진의 파악을 강조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 북핵 협상이 지금까지 10년가량의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미해결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의 핵 협상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고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현재로서는 속단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적지 않음.
- 북한이 결국 6자회담 복귀 의사를 표명한 것은 북-미대화를 성공시키고 성공적으로 국제사회에 진출하기 위한 생존 전략이지만 김위원장이 이를 원자바오 총리와의 회담에서 발표한 것은 중국에 대한 배려차원으로 평가됨. 북한이 미국와의 협상과 국제사회 진출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선 중국의 지지와 협조가 절대적이기 때문에 6자회담 성공을 외교의 중요 성과로 내걸고 있는 중국에 체면을 세워줄 필요가 있었음.
- 북한은 지난 5월 중국의 반대에도 강행한 2차 핵실험으로 냉랭해졌던 북-중 관계를 다른 국가와는 비길데 없는 전통적인 우호협력로 확립하는 것이 급선무였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지난 6월 북한에 대한 취한 제재결의는 북한에 전방위에서 압박을 가해왔고 북한은 이 제재를 해제하는 데도 중국의 힘에 크게 의존해야 할 상황임.
- 김정일 위원장은 지난 9월 18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에게 북한은 핵 문제 해결을 위해 다자 또는 양자 회담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혀 6자회담 복귀 신호를 보냈었음. 북한은 이어 원자바오 총리의 이번 방북때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공항에 영접을 나오고 대규모 군중이 환영을 하는등 파격적인 예우를 해 원총리 방북기간 ‘큰 선물’을 할 것임을 시사함.
- 중국은 때로 서방 전문가들에 의해 대북 영향력에 의문이 제기됐으나 역시 결정적인 순간에 북한을 국제 협상 테이블에 끌어내는 저력을 보여왔음. 중국은 지난 2003년 4월 6자회담의 전신인 3자회담을 성사시킨데 이어 ▲ 6자회담 재개(2006년 10월) ▲6자회담 공동성



명 합의(2008년 9월9일) 등 6자회담이 고비를 맞을 때마다 대북문제 해결사 능력을 과시함.

- 북-중 관계는 탈냉전과 중·소분쟁의 종식을 계기로 종전의 혈맹관계에서 벗어나 일반적인 국가 대 국가의 관계로 변화했지만 이번 김정일-원자바오의 회담에서 60년의 전통을 깔고 있고 전략적 이해가 일치하는 북-중 관계의 특수성이 확인됐다는 것이 베이징의 외교 소식통의 일치된 시각임.

### ● 北김정일 “다자회담에는 6자회담도 포함돼”(10/6)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5일 방북중인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를 만나 북핵 문제와 관련, “우리는 (이미) 조·미(북·미) 회담결과를 보고 다자회담을 진행할 용의를 표명하였다”며 “다자회담에는 6자회담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6일 전함. 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원자바오 총리의 숙소를 방문, 면담한 자리에서 “조선반도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이다. 조·미 양자 회담을 통하여 조·미사이의 적대관계는 반드시 평화적인 관계로 전환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하고 “조선반도 비핵화 목표를 실현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변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고 소개함.
- 김 위원장이 “우리는 조·미 회담결과를 보고 다자회담을 진행할 용의를 표명하였다”고 말한 것은 그가 지난달 18일 방북한 중국의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에게 “양자 및 다자회담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풀이됨. 통신은 김 위원장과 원 총리가 “조·중 친선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해서와 호상(상호) 관심사로 되는 일련의 문제들에 대하여 진지한 담화”를 나눴다며 “담화는 따뜻하고 친선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함.
- 김 위원장은 백화원영빈관에서 면담 뒤 원 총리 일행을 위해 만찬을 열고 원 총리와 작별인사를 나눴다고 통신은 밝힘. 만찬에는 북측에서 장성택, 김양건 노동당 부장과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 김영일 외무성 부상 등이 참석함. 김 위원장은 이날 저녁 원 총리 면담에 앞서 ‘5월 1일 경기장’에서 원 총리와 함께 북·중 수교 60주년을 기념하는 ‘조·중 친선의 해’의 폐막식에 참석하고 ‘아리랑’을 관람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이 전함.

### ● <김정일-원자바오 주고받은 대화>(10/6)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5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회담을 갖고 6자회담에 대한 조건부 복귀 의사를 밝힘.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6일자 기사를 통해 김 위원장과 원 총리가 주고받은 발언 내용을 정리해 소개함. 기사에서 언급된 내용을 토대로 김 위원장과 원 총리가 나눈 발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 김정일 위원장 발언: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게 따뜻





한 안부 인사를 전함. 원자바오 총리께서 조·중 수교 60주년과 양국 우호의 해를 맞아 조선(북한)을 공식 친선 방문해 주신 것은 중국의 당과 정부가 조·중 관계의 발전을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를 증명함.

- 양측의 유관 경축 행사가 매우 성공적으로 끝난 것은 조·중간 전통적 우의를 심화시켰음. 조선은 중국과 함께 노력해 조·중 우호협력 관계를 부단히 공고하게 하고 강화하길 희망함. 한반도의 비핵화는 김일성 주석의 유훈임. 조선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위해 노력한다는 것에는 변화가 없음. 조·미 양자회담을 통해 조·미간 적대관계가 반드시 평화관계로 바뀌어야 함. 조선은 조·미회담 상황을 지켜보며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을 진행하길 원함.
- ◇ 원자바오 총리 발언: 먼저 후진타오 공산당 총서기겸 국가주석의 안부와 축하 인사를 전함. 중·조 우의와 협력관계는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며 여러 세대가 공동노력한 결과임. 양국 선배 세대의 심혈이 응축된 것으로 양국 인민의 열망에도 부합함. 현재의 사물과 접촉하면서 과거를 떠올리게 됨. 우리는 선배들의 사업을 계승해 앞길을 개척해 나가야 함. 우리는 중·조 우호관계를 대대손손 계승해 나가야 함. 이는 역사와 선배에 대한 존중일 뿐만 아니라 미래와 후손들의 책임이기도 함.
- 중국은 북한과 함께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고 실질적인 협력을 심화시켜 중요한 문제에서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화목한 이웃으로서 우호협력관계를 부단히 발전시켜 나가길 원함. 조선이 한반도의 비핵화 목표를 견지하고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대화를 통해 이 목표를 실현하겠다고 밝힌 것에 찬사를 보냄. 중국은 조선 및 나머지 유관 당사국과 함께 노력해 한반도의 비핵화를 실현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공헌을 할 것임.

### ● “김정일 6자회담 언급..진일보”<中 전문가>(10/6)

- 선스순(沈世順) 중국 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태평양안전협력연구부 주임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5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와의 회담에서 6자회담을 직접 언급하며 대화 의사를 밝힌 것은 진일보한 태도 변화라고 의미를 부여함. 중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선스순 주임은 6일 연합뉴스와 전화인터뷰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지난달 18일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특사 자격으로 방북한 다이빙귀(戴秉國) 국무위원에게 양자 및 다자회담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뒤 원 총리에게는 한 발짝 더 나아가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같이 평가함.
- 선 주임은 “미국과의 양자 회담을 원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미국의 오바마 정권 역시 양자회담 의사를 밝혔고 한국과 일본 등도 대화에 나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면서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경색됐던 올해 초와는 분위기가 상당히 다르다”고 전함. 그러면서도





선 주임은 북한이 6자회담에 무조건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밝힌 것이 아니라 조건을 달았다는 점에도 주목함.

- 김 위원장은 “북한은 북·미 양자회담의 상황을 지켜본 뒤 6자회담을 포함한 다자회담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하기에 앞서 “북·미 양자회담을 통해 북·미의 적대관계가 반드시 평화관계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함.
- 선 주임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비롯해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북한의 주장처럼 미국이 대북 적대정책을 포기하고 북한은 미국과 한국 등의 주장대로 핵무기를 완전히 포기해야 하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말함. 양측이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만 핵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것임.
- 선 주임은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 목적을 북·중 우호관계 강화와 북핵 문제 진전, 북·중 경제무역 촉진 등 3가지로 규정하면서 3가지 목적이 모두 달성됐다고 평가함. 그는 “최근 들어 뜸했던 양국 간 최고 지도자간의 회담이 이뤄져 전통적 우호관계가 회복됐고 북한이 조건을 달긴 했지만 6자회담 복귀 의사를 피력했고 북한은 무상원조를 받고 중국은 개발이 기대되는 미개척지인 북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았다”라면서 이같이 말함.

### ● “북한서 중국 지지 쿠데타 가능성 있다”(10/5)

- “평양에서 중국 지지 쿠데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에 대한 중국의 대규모 경제활동은 중국이 각계각층의 북한 인민과 친분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이는 중국이 북한에서 정보를 수집해 비밀작전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러시아의 한국 현대사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프 국민대 초빙교수(전 레닌그라드 국립대 교수)는 최근 사할린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극동러시아협의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일단 변하기 시작하면 누구도 그 속도와 방향을 조절할 수가 없을 것이고, 북한에 응급상황이 발생할 시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말함.
- 사할린의 한글신문인 새고려신문은 5일자에서 지난달 26일 유주노 사할린스크시의 메가팔레스호텔에서 열린 통일 관련 세미나에서 란코프 교수가 발표한 내용을 요약해 실었음. 란코프 교수는 “통일의 필요조건 중의 하나가 현 북한체제를 대체해야 한다는 것인데, 통일을 준비하려면 '통일조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조약은 과도기 동안 남북한 통일국가의 임시 헌법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함.
- 조약에는 어느 부문에서 언제까지 어떤 정책을 취해야 하고, 또 완전 통일까지 남북한의 법률, 제도가 어느 정도 다르며, 통일준비 기간에 북한 사람들의 권리나 제한이 무엇인지 등등이 담겨야 한다고 주장함.



- 그는 “통일 과정을 정하는 조약은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 현 북한 정부를 대체하는 임시정부가 들어서고, 통일논의가 시작되면 남한 엘리트들이나 남한 사회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을 ‘집단 승리자’로 여기고 북한 주민들을 ‘집단 패자’ 아니면 ‘값싼 노동력’으로 여기는 경향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함. 즉, 그들은 북한을 ‘개발’해야 하는 ‘신식민지’로 볼 위험성이 있다는 것.
- 란코프 교수는 “북한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통일한국의 장래를 위해 좋지 않다. 북한이 60년 전에 한 옳지 않은 정치적 선택은 남북 사이의 커다란 경제적 불평등을 가져왔지만, 남한 사회의 의무는 이러한 불평등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극복하는 것”이라고 밝힘. 그는 또 “‘통일조약’에서 다루어야 할 중요한 문제로 토지소유가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가 이북에서 1946년에 한 토지개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아주 폭발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조약에서 토지개혁의 결과를 명확하게 인정해줘야 한다”고 못 박았음.

#### 라. 일·북 관계

##### ● 日, 김정일 관계개선 발언에 기대-우려 교차(10/11)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지난 5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회담에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뿐 아니라 일본, 한국과도 관계개선을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고 원 총리가 10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공개한 데 대해 일본 정부 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음.
-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는 같은 날 3국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미 협상 이후 6자회담이 개최돼, 북한의 핵 폐기의 길이 열리는 것을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일단 긍정 평가했음. 지난달 일본의 정권교체 후 일본과 북한측은 관계개선을 위한 물밑 탐색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일본과도 관계개선을 하려고 한다는 입장을 김 위원장이 직접 표명했다는 점에서 일본 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음.
- 자민당 정권이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결국은 좌절된 만큼 새로 출범한 민주당 정권에서 이 문제의 전기를 마련한다면 정권교체에 이어 또 다른 성과를 올리면서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임.
- 다만, 일본 정부 내에서도 “북한이 그동안 6자회담 등 협상 과정에서 말을 바꾼 적이 많은 만큼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음.
-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은 “(6자회담이나 북일 관계 개선의 전제가 되는) 북미 회담이 어떻게 전개될지를 보지 않고는 구체적인





의'라는 말을 빼는 대신 '선군사상'을 새로 넣어 고 김일성 주석의 '주체사상'과 같은 반열에 올려놓았으며 언론매체 보도를 통해 김 위원장의 '선군영도 위업'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고 있음.

- '교양자료'는 김정은에 대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천재적 영지와 지략을 지닌 군사적 영재"라거나 "현대 군사과학과 기술에 정통한 천재"라고 군사적 재능과 경력 위주로 선전하고 있음. 자료는 특히 "2006년 12월24일 김정은 대장 동지는 김일성군사종합대학의 졸업 증명서와 휘장을 수여받는 자리에서 주체의 선군혁명 위업을 찬란히 계승해 나갈 것을 희망했다"며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시절에 포병 지휘관 3년제와 연구원 2년제를 전과목 최우등으로 졸업했다"고 주장함.
- 이는 앞으로 북한이 향후 김정은의 후계자 수업기간을 후계자로 내정된 지난 1월이 아니라 이 시점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가 산정할 것임을 예고한 것임. 김정은의 군사적 재능 입증사례로 자료는 그가 특히 포병전에 능하며, 북한군이 위성항법장치(GPS) 수신기와 인공 위성 자료를 이용한 지도를 작성한 것도 김정은의 아이디어라고 주장함. "김정은 대장 동지가 작전지도에 반영한 포병이용 계획을 보고 백전노장들도 그 분의 군사적 안광에 감복을 금치 못했다"는 것.
- 자료는 김정은이 올해 초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군부대의 포사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밝혀 그가 올해 3월까지 세 차례 북한 언론에 보도된 김 위원장의 포병부대 시찰에 동행했음을 시사함. 자료는 또 장거리 로켓 발사 때 김 위원장과 함께 직접 시찰했다고 밝혀 그가 위성 관제소 현장에서 참관했다는 당시 대북소식통의 말을 확인했고, 4월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과 5월1일 노동절을 맞아 치러진 '축포 야회'를 김정은이 직접 조직,지휘했다고 밝혀 역시 당시 소식통의 말을 확인함.
- 이 자료는 김정은에 대해 "위세 좋게 울려 퍼지는 목소리 등 우리 수령님(김일성)과 우리 장군님(김정일)을 꼭 빼닮은" 외모까지 거론하며 "유일무이한 후계자"로 내세웠음. 고 김일성 주석이 김정일 위원장의 재능을 자랑했듯이 김 위원장도 김정은의 재능을 자랑함. "(김정일)장군님은 4월의 명절을 맞이하여 진행된 축포야회를 보시고 최대의 만족을 표시했다"며 "김정은 대장 동무가 당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인 것을 행했다고 인지할 때마다 감동을 금할 수 없다고 말씀했다"는 것.
- 김 위원장은 또 "김정은 대장 동무는 군사적 안목이 넓으며, 실력이 매우 높다"고 칭찬하고, 북한군 지휘관들에게 "김정은 대장 동무를 확실히 받들어 본인의(나의) 의도와 동일하게 인민군대를 정치군사적으로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지침을 주고 당,정 간부들에게도 "당과 인민에 대한 김정은 대장 동무의 충실성과 헌신적 복무정신을 본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자료는 전함. 고 김일성 주석도 김 위원장의 후계자 시절 그의 '영도력' 등을 찬양하며 간부들이 김 위원장





에게 충실할 것을 강조했었고, 북한은 이를 널리 소개함.

- 자료는 또 김정은이 “전설적 강행군을 끊임없이 연장하시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노고를 줄이고 기쁨과 만족을 드리기를 위해 문무중효를 바치고 계시다”고 말해 그가 김 위원장의 현지도에 동행하고 있음을 시사하면서 아버지에 대한 효심도 강조함. 자료는 이어 김정은이 “역사에 유례없는 가장 혁명적인 가정에서 탄생하시어 경애하는 장군님과 존경하는 어머니의 혁명적이고 치밀한 교양과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했다”고 서술해 앞으로 정은의 생모인 고 고영희씨에 대한 우상화 작업도 벌어질 것을 예상케 함.
- 이러한 김정은은 “최고사령관 동지의 유일한 후계자이시며, 주체의 선군혁명 위업의 위대한 계승자이자 영도자”라고 자료는 강조하고, 김정은에 대한 첫 찬양가요인 ‘발걸음’을 “21세기의 수령 찬가”라고 주장함.

#### 마. 기타

##### ● 대북인권단체-HRW, 제네바서 北인권실태 보고(10/7)

- (사)북한인권시민연합과 대한변호사협회가 파견한 비정부기구(NGO) 합동대표단은 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HRW)와 공동으로 북한 인권실태를 보고하는 행사를 열고 개선을 촉구함. 이날 행사에는 지난 2007년 탈북해 이듬해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 김미란(여.가명) 씨가 참석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증언함.
- 이에 앞서 허만호 경북대 교수(시민연합 연구이사)와 이명숙 변호사(대한변협 인권위원장)를 공동단장으로 하는 합동대표단은 지난 3일 제네바에 도착한 이후 각국 외교공관과 유엔인권최고대표실(OHCHR)을 비롯한 국제기구 등을 돌며 정치범 수용소 실태 등 북한 인권상황을 알리는 보고서를 전달함.
- 대북인권단체의 이번 활동은 오는 12월 7일 제네바에서 열릴 유엔인권이사회(UNHRC)의 북한인권상황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UPR) 회의를 앞두고 사전에 각국 외교관계자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것임.

##### ● 佛 대북특사 “내달 9~10일 방북”(10/6)

- 일본을 방문 중인 자크 랑 프랑스 대북담당 특사는 6일 교토(共同)통신과의 회견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내달 9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힘. 랑 특사는 자신의 임명 경위와 관련,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에 프랑스가 공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그러면서 그는 “당연히 관계국과 협력할 것이며, 단독 행동을 취할 생각은 없다”고 강조함.
- 프랑스는 유럽 주요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북한과 국교를 맺지 않고 있으며, 특사의 임무에는 국교 수립의 타당성 검토도 포함돼 있다





고 교도통신은 전함. 이와 관련, 랑 특사는 “미리 답변을 할 수는 없다. 우선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함. 지난 5일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상과 회동해 대북 문제에 대한 협력 방침을 확인한 랑 특사는 6일 방한 길에 올랐음. 그는 북한 방문에 앞서 러시아, 미국, 중국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 2. 주변국 관련

### 가. 한·미 관계

#### ● “韓, PSI이행 투명통보하면 北반발 줄일 것”(10/9)

- 한국이 미국의 ‘대 테러전’에 대한 협력의 일환으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참여할 때 “유엔이나 남북간 대화통로를 통해 북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다면 북한의 불필요한 오해나 반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미국의 한 전문가가 주장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9일 전했다.
-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태평양포럼(CSIS Pacific Forum)의 케빈 쉐퍼드 박사는 8일(워싱턴 현지시간) 브루킹스연구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반 테러전 협력과 한미동맹’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뒤 RFA와 인터뷰에서 “반 테러전은 매우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쉐퍼드 박사는 “한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를 북한에 공개할 필요는 없으나 투명할 필요는 있다”고 강조했다.
- 그는 특히 북미 양자대화에 이어 6자회담이 재개되면 한국의 대북 강경책이 완화되고 이를 통해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이 경우 한국은 북한이 반발하는 PSI를 비롯한 대 테러전 협력에 적극 나서기 어려울 수 있으나 “그런 상황에서도 한국의 투명한 정책이 지속돼야 대 테러전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쉐퍼드 박사의 발표문 초록에 따르면, 그는 한미간 반테러전 협력 심화가 한미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그러나 ▲북한의 반응 ▲협력 확대와 적극적인 파병에 대한 한국내 여론 ▲“한반도를 벗어날 것 같지 않은” 지상군 위주의 군비 지출을 한미간 반테러전 협력에 도전요인으로 제시하면서 더욱 원활한 양자 혹은 다자간 반테러전 협력을 위해 이들 장애요인들을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해외파병에 대한 한국내 여론 문제와 관련, 그는 “여러 차례의 국내 정치적 충돌에 따른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도 약화는 어떠한 추가적인 미국과의 협력조치도 여론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주도면밀하게 이뤄져야 함을 시사한다”고 쉐퍼드 박사는 말했다.



### ● “北核..美의 사실상 ‘2개 한국’ 인정 결과”(10/8)

- “오늘날의 핵문제는 미국의 사실상 2개 한국정책에서 비롯된 불행한 결과입니다.” 미국의 한국문제 전문가인 폴 챔버린 국제전략연구소(CSIS) 객원연구원은 7일 워싱턴 DC 주미한국대사관 코러스 하우스에서 ‘하나의 한국: 현재의 핵문제 해결을 위한 더 바람직한 동맹의 해결책’을 주제로 열린 초청강연에서 이같이 밝힘.
- 챔버린은 미국이 그동안 북핵문제 해결에 실패한 이유를 “미국의 정책이 근원적인 문제를 다룰 수 없는 너무 지엽적이었다는데 있었다”며 북핵 등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평화롭고 민주적인 통일’을 전제로 한 하나의 한국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함. 그는 “한반도를 어떤 한국의 정부가 통치해야 하느냐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의 뿌리였다”면서 “이것이 북한의 호전적인 태도와 남북의 갈등뿐만 아니라 아직도 휴전 상태로 계속되고 있는 한국전쟁의 원인”이라고 분석함. 이에 따라 미국은 한반도의 정책목표가 한국정부가 추구하는 ‘평화롭고 민주적인 통일’이라고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챔버린은 강조함.
- 과거 소련과 동유럽 국가의 붕괴에서 국민의 동의가 없는 정부는 무한히 통치할 수 없다는 원칙이 확인됐듯이 북한도 그러한 흐름에서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미국도 한반도의 미래가 한국임을 인정하는 1개의 한국정책을 추진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임. 하지만 챔버린은 이러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성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지름길이나 특효약이 없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인내가 필요하다고 지적함.
- 그는 하나의 한국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대안으로 ▲북한 주민에게 진실 알리기 ▲탈북자 지원 ▲북한내 하나의 한국정책 동조자에 대한 사면약속 ▲북한 주민들에 대한 끈기있는 접근 ▲중국 등 주변국들의 반발 축소 및 지원확보 ▲통일 국제기금 조성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함. 이와 함께 챔버린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방북한 원자바오 중국 총리에게 북핵논의를 위한 양자와 다자회담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 “북한의 목적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낙관하지 않는다”고 말함.

### ● 오바마, 11월 18-19일 첫 訪韓(10/8)

- 미국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11월 18-19일 한국을 공식 방문할 계획이라고 7일 발표함. 오바마 대통령의 방한은 취임 이후 처음임. 로버트 기브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후 처음으로 아시아지역 방문에 나서 내달 12일부터 19일까지 일본, 싱가포르, 중국, 한국을 차례로 순방한다”고 밝힘.



김토일 기자 kmtol@yna.co.kr / 20091008

- 기브스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첫 순방지인 일본을 내달 12-13일 방문하고 이어 13-15일 싱가포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며 중국은 15-18일 방문할 계획이라고 설명함. 특히 기브스 대변인은 “오바마 대통령이 11월 18일과 19일 서울을 방문할 것”이며 “그는 이번 방문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3번째 정상회담을 개최해 북한 문제와 다양한 지역 및 국제문제를 협의함으로써 한미공조를 더 강화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힘.
- 그는 또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주둔 중인 미군들과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전함.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지 1년이 채 안 돼 열리는 3번째 회담이라는 점에서 한층 강화된 한미동맹 관계를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4월 영국 런던 주요 20개국(G20) 금융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회담했고 지난 6월에는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 있음.
- 이들 정상은 또 지난달 열린 유엔 총회와 미국 피츠버그 G20 회의에서도 만난 적이 있으며 그동안 3차례 전화통화 등을 통해서도 우의를 과시한 바 있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폐기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또 아프가니스탄 미군 증강과 관련해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지원을 요청할지도 관심거리임.



- 이와 함께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 최대현안의 하나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처리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 나. 한·중 관계

### ● 韓中정상 “6자회담, 유용한 틀”(10/10)

- 이명박 대통령은 10일 오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와 45분간 한중 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와 양국 실질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음.
- 이 자리에서 원 총리는 지난 4~6일 북한 방문 결과에 대해 설명하면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를 전해달라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뜻을 이 대통령에게 전했다며, 이 대통령은 “북한이 진정으로 핵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열린 자세로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음. 두 정상은 6자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의 유용한 틀이라는 것을 재확인하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음.
- 두 정상은 또 지난해 양국관계가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 이후 더욱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내년 ‘중국 방문의 해’를 계기로 양국 교류를 더욱 강화해나가기로 했음. 이와 함께 양국 통상장관이 이번에 수정·보완한 ‘한·중 경제통상 협력비전 보고서’를 환영하고 이를 중장기 경제통상 협력지침으로 삼아 이행하기로 의견을 모았음.
- 두 정상은 아울러 내년 11월 한국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으며 2010년 상하이 박람회와 2012년 여수 박람회의 성공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음.

### ● <韓中日정상 ‘실용’ 앞세운 파격회담>(10/10)

-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10일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는 과거에 보기 어려웠던 ‘파격’이 넘쳤다는 후문임. 이는 3국 정상 모두 ‘실용주의적’ 사고와 행동을 중시해 불필요한 격식을 최대한 줄이려 했기 때문이라는 게 회담 배석자들의 설명임.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특히 ‘거품없는 대화’를 나눴다고 함.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별 필요없는 감사 표시나 인사말 등을 과감히 생략하고 곧장 본론으로 직행하는 ‘직설 화법’을 통해 회담 시간 2시간을 그 어느 때보다 알차게 썼던 것으로 전해졌음.
-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을 정부 차원에서 일단 추진해 보자는 공감대와 3국 정상회의 사무국을 사이버상에 우선 설치해 운영하자는 합의는 이처럼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실용주의가 잘 나타난





대목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설명임.

- 특히 하토야마 총리는 이 대통령이 정부 차원의 한·중·일 FTA 체결 협의를 제안하자 관계 장관에게 대신 답변토록 하면서 찬성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음.
-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정상회의는 종전의 다자회담과 달리 파격과 신선함이 있었다”면서 “3국 정상 모두 순서나 격식에 얽매이지 않고 허심탄회하고 실용적으로 회의를 진행했다”고 말했음.
- 한편 중국의 외교안보 관계자들은 이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북핵 일괄타결)’을 중국식으로 ‘대교역(大交易)’이란 용어로 부를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韓中日 정상, 북핵 ‘그랜드 바겐’ 공감(10/10)

-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10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제2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갖고 이 대통령이 제안한 북핵 일괄타결 방안인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 구상에 원칙적인 공감대를 형성했음.
-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의 직후 가진 3국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핵의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위한 일괄타결 구상을 설명했으며 구체적 추진방안은 3국을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계속 협의할 것”이라면서 “기회가 닿으면 언제든 북한에 대해서도 (그랜드 바겐 구상을) 설명하고 협력을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음.
- 이 대통령은 이에 앞서 정상회의에서 “우리의 그랜드 바겐에 대해 북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 이와 관련, 원 총리는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한반도 비핵화와 6자회담 추진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며 “이 대통령의 일괄타결 방안에도 개방적 태도로 적극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말했다.
- 하토야마 총리도 공동기자회견에서도 “북핵 문제를 포괄적으로 파악해 해결하겠다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고 이 대통령의 그랜드 바겐에도 통하는 부분이 있다”며 지지의사를 재차 확인했음. 3국 정상들은 또 이날 정상회의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6자회담이 유용하다는데 합의하고 6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공동노력하기로 했음.
- 원 총리는 공동기자회견에서 최근 방북결과를 설명한 뒤 “북한은 6자회담 문제에 대해 유연성을 보였고 6자회담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선언했다”면서 “양자와 다자 채널을 통해 관련 해결을 희망한다고 했다.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하자고 했다”고 소개했음. 그는 또 “북한측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희망했을 뿐 아니라 일본, 한국과도 관계 개선을 하려고 한다”고 밝히고, “6자회담 틀 안



에서 양자대화 채널이 있었다. 북미 사이에 진지하고 건설적인 대화를 하는 것을 지지하고 북일, 그리고 북남 사이의 접촉 강화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 3국 정상들은 한·중·일 FTA(자유무역협정)의 조속한 체결이 필요하다는 데도 의견을 같이 했음. 이 대통령은 “3국 FTA는 민간 차원의 공동연구에서 이제 정부 차원의 협의가 개시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하토야마 총리는 “FTA 추진도 민간에서 정치적 차원으로 격상키시고 3국 투자협정을 먼저 내년에 성립시키는 게 경제협력 향상과 경제위기 극복에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 3국 정상들은 이날 회의에서 1999년 첫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이후 10년간의 성과와 비전을 정리한 ‘한·중·일 3국협력 10주년 기념 공동성명’과 경제성장 및 환경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내용의 ‘지속 가능 개발 공동성명’을 채택했음.
- 3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한국의 전국경제인연합회,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 일본 경단련 주최로 3국의 재계 인사들이 모여 3국간 무역·투자 활성화,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는 ‘한·중·일 비즈니스 서밋(summit)’을 발족, 상설화하기로 했으며 이날 첫 회의를 열었음. 또 ▲한·중·일 정상회의 사이버 사무국 개설 ▲수자원 관련 장관간 협의체 설립 ▲한·중·일 순환경제 모델 기지 구축 ▲유엔 개혁과 지역·국제 문제에 대한 협의 강화 등에 합의했음.
- 아울러 3국 정상들은 내년 제 3차 한·중·일 정상회의와 제 4차 3국 외교장관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고, 내년 11월 한국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음.

#### ● **李대통령 “韓·中 교역·투자 확대해야”(10/9)**

- 이명박 대통령은 9일 한국과 중국간 경제 분야 협력과 관련,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에 걸맞게 한·중 양국간 교역은 물론 상호 투자가 더욱 확대돼야 한다”고 말함. 이 대통령은 이날 발행된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와의 서면인터뷰에서 “한·중 양국은 ‘전략적 협력 동반자관계’를 성공적으로 발전시켜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힘.
- 특히 이 대통령은 “양국은 정보통신, 금융, 에너지 분야 등의 협력을 더욱 활발히 하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환경기술 등 신성장동력 분야로 협력의 지평을 넓혀 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이어 “당면한 국제금융체제 강화 논의는 물론 기후변화협상, 에너지, 녹색성장, 환경보호 등 주요 국제경제 현안에 있어 함께 기여할 방안을 모색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이 대통령은 또 “양국 정상을 포함해 정부간 상호 방문과 교류를 더욱 빈번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앞으로 양국이 가장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말함. 북핵 문제 해법과 관련, 이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6자 회담을 통해 풀어가면서 상생·공영의 남북 관계로 발전시키고자 한다”면서 “6자 회담 의장국으로서 그간 중



국의 역할을 평가하며 앞으로도 더욱 건설적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함.

- 이 대통령은 내년 G20 정상회의 유치와 관련해 “한국은 의장국으로서 선진국, 신흥국, 개도국 모든 나라가 균형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국제 공조를 이끌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함. 이 대통령은 ”유치 과정에서 중국이 확고한 지지를 보여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있다”면서 “한·중 양국은 G20 정상회의의 제도화, 보호무역저지, 국제금융개혁 강화 등 대다수 G20 현안에서 같은 입장을 갖고 공동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앞으로도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양국간 협력이 긴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함.

### ● 한·중 환경협력 증진 방안 논의(10/8)

- 우리나라와 중국이 8~9일 상하이에서 제14차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열고 양국의 환경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한다고 외교통상부가 8일 밝힘.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환경산업 협력, 환경기술 공동연구, 황해 환경 모니터링 등 양국의 환경협력 증진 방안을 전반적으로 협의하고 12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리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대비해 양국의 입장을 공유할 계획임.
- 이번 회의에 우리 측에서는 권해룡 외교부 국제경제국장이, 중국 측에서는 쉬 칭화 환경보호부 국제합작사장(국장급)이 수석대표로 참석함. 양국은 1993년 이후 환경협력 공동위를 매년 교대로 열고 있음.

### 다. 한·일 관계

#### ● 李대통령·하토야마,북핵 ‘그랜드바겐’ 합의(10/9)

- 이명박 대통령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9일 청와대에서 한·일정상회담을 갖고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 이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일괄타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함. 이 대통령은 이날 한·일정상회담 직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지 않으면 안되는 분위기가 국제사회에 형성되고 있다”면서 “북한이 북·미회담을 통해서 (북핵) 6자회담에 나올 것이라는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다”고 밝힘.
- 이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우리가 제안한 문제에 대해 깊이 검토할 것으로 본다”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으로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라고 북한도 볼 것”이라고 강조함. 이 대통령은 “한·일 두 정상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결방안에 공감하고 일괄타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키로 했다”며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함.
- 이와 관련, 하토야마 총리는 “이 대통령이 주장하는 그랜드 바겐, 일



괄타결 방안이 아주 정확하고 올바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지 의사를 밝힌 뒤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해 일괄적, 포괄적으로 문제를 파악해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한 경제협력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함. 그랜드 바겐은 이 대통령이 최근 방미 기간 국제사회에 제안한 북핵 해법으로, 6자회담에서 북핵 프로그램을 사실상 폐기하는 대가로 북한에 안전을 보장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일괄타결 방안임.

- 특히 하토야마 총리는 재일교포의 지방참정권 문제와 관련,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싶다”며 “그러나 국민의 감정이 통일돼 있지 않아 이를 위해 내각에서 논의를 계속해 결론을 찾아보고자 한다. 내각이란 팩터(factor: 요인)를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말함. 그는 일왕 방한 문제에 대해서는 “천황 방문에 대해서는 천황도 강하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며 “고령이고, 일정적 문제도 있어서 총리 대신이 어디까지 이에 대해 관여할 수 있을 지 하는 문제도 있다. 간단히 말할 수 없는 환경이란 것도 이해해달라”고 밝힘.
- 하토야마 총리는 또 한·일 과거사 청산 문제와 관련, “소위 무라야마 담화의 뜻을 정부의 한 사람 한 사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생각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국민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는 부분은 이해해 달라”고 말함. 두 정상은 회담에서 ▲중소기업간 협력 등 민간 경제협력 강화 ▲제3기 한·일문화교류회의 조속 출범 ▲‘한·일 그린 파트너십(Green Partnership) 구상’ 구체화 협의 ▲내년 한국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와 일본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긴밀협력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및 동아시아지역 협력 확대 등에도 합의함.

### ● 하토야마 “무라야마 담화 가슴안고 행동”(10/8)

- 9일 한국을 공식 방문하는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과거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의 역사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가슴에 안고 행동하겠다고 거듭 강조함. 하토야마 총리는 8일 관저에서 기자들과 만나 무라야마 담화와 관련 “역사를 직시하고 싶다. (무라야마 담화는) 무거운 담화로 가슴에 뚜렷이 안고 행동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이 보도함.
- 무라야마 담화는 지난 1995년 8월 15일 종전기념일을 맞아 당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가 내각회의 결정에 근거해 일본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죄한 것을 일컬음. 토야마 총리는 지난달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후진타오 중국 주석과의 회담에서 “무라야마 담화를 기본적으로 답습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또 총리 취임 전인 8월에는 “무라야마 담화의 뜻을 충분히 이어받는 정권이 되겠다”고 말함.
-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외무장관은 7일 외국특파원협회 강연에서 “아시아에는 아직 (무라야마 담화를)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이 일정





부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제는 말보다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혀 무라야마 담화에서 더 전향적으로 나갈 의사를 표명함. 일본 총리와 외상이 거듭 ‘무라야마 담화의 계승’과 ‘행동’ 의사를 밝힘에 따라 과거 역사에 대한 일본의 진전된 반성과 사죄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주목됨.

- 일본의 총리들은 과거 기회있을 때마다 무라야마 담화의 계승 의사를 밝혔으나 말로만 그쳤을 뿐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참회와 사죄로 이어지지 않았음. 하토야마 총리는 10일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담의 의의와 관련 “한국과 중국이 모두 소중한 이웃 나라로 신뢰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함.
- 정상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내 생각을 다양하게 말해보고 싶다”면서 “기후변화 문제와 동아시아 공동체 문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함. 그는 동아시아공동체 구상과 관련 “일조일석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탁상공론으로 끝내고 싶지는 않다”면서 “미래를 응시하며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접근해, 예를 들자면 과학기술의 3국 간 협력, 젊은이들 교류, 교육분야의 새로운 협력 등을 구체화해 나가고 싶다”고 밝힘.

#### ● <日 소에야 교수 연합뉴스 기고문 전문>(10/7)

- 일본의 한반도 전문가인 소에야 요시히데(添谷芳秀·54) 게이오(慶應)대 법학부 교수는 8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의 9일 한국 방문에 앞서 연합뉴스에 보낸 기고문에서 “이번 방문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함. 소에야 교수는 게이오대 동아시아연구소장 겸 ‘한·일 신시대 공동연구 프로젝트’ 한·일관계 분과 일본측 위원장도 맡고 있음. 다음은 소에야 교수의 기고 전문.
- 민주당 외교와 한·일관계-역사적 전환점이 될까: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가 9일 한국을 방문함. 10일에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되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전의 방한임. 아시아 외교를 중시하는 하토야마 총리가 중국을 방문하기 전에 한국에 들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음. 지난 8월 30일에 실시된 중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대승한 것은 전후(2차대전 후) 일본의 민주주의에서 역사적인 일임.
- 양대 정당체도가 겨우 시작돼, 일본 국민이 선거에 의해 정권교체라는 선택지를 손에 넣었기 때문임. 지금까지도 자민당에 의한 정권 운영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지만, 일본 국민은 야당에 정권을 맡길 자신을 갖지 못했었음.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자민당은 300석에서 119석으로 의석이 대폭 줄었고, 민주당은 중의원 정수인 480석 가운데 308석을 획득함. 자민당이 제1당의 자리에서 전락한 것은 1955년 창당 이래 처음이었음.
- 그 첫째 의미는 역시 국내 정치에 있지만, 외교에 대한 영향도 적지 않음. 한국 사람들이 신경을 써야 할 것은 보수주의에서 정체성을 찾



는 흐름에 기울었던 자민당을 일본 국민이 버렸다는 것임. 일본인과 긴밀하게 접촉해 보면 바로 알게 되지만, 많은 일본 국민의 가치의식은 극히 ‘포스트모던’적인 만큼 보수주의나 내셔널리즘에는 마음이 설레지 않음. 중국, 한국과의 근린 외교를 중시하는 민주당 외교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사실 매우 강함. 하토야마 총리가 더 한편으로 힘을 쏟는 지구환경 문제나 아프가니스탄 민생 지원이라는 글로벌 외교도 근린 외교에 발판을 구축함에 따라 기반이 강화됨. 그리고 일본의 근린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한국임.

- 동아시아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존재감을 증대시키고 있는 중국은 물론 중요함. 그러나 중국은 일본이나 한국과 같은 국민국가라기보다는 독자적인 ‘소우주(小宇宙)’와 같은 존재함. 그리고 중국보다도 다소 큰 소우주가 미국이므로, 그런 의미에서 미·중 관계는 아시아 지역 질서의 뼈대라고 할 수 있고, 문자 그대로 전략적 관계임. 일본도 한국도 미·중 양국의 골짜기에서 지정학적으로 비슷한 입장임. 모두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존재를 지지하면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한목소리를 내서 미국에 의견을 말하는 것도 좋음.
- 중국과의 외교, 그리고 장래의 행방도 결코 중국에 대항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오히려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한·일 양국이 같은 시선으로 더욱 깊게 관찰해야 함.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미·중 관계가 중요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음을 냉정하게 수용, 한·일 양국이 독자적인 역할을 모색해야 함. 한국을 중시하는 민주당 외교는 한·일관계에 위와 같은 역사적 전환을 가져올 가능성을 간직하고 있음. 그를 위해서는 한·일 양국 국민이 같은 방향을 향할 필요가 있음.
- ‘한·일 병합’ 100년이라는 고비가 되는 내년이 한·일관계의 새로운 100년을 향한 첫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음. 9일 회담하는 한·일 양국 정상들이 그런 결의를 연출했으면 좋겠음.

## 라. 기타

### ● 中 1만톤급 차세대 구축함 띄운다(10/9)

- 중국이 배수량이 1만t이 넘는 차세대 구축함을 건조하기로 하는 등 대양해군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전진하고 있음.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문화보(文匯報) 등 홍콩 신문들은 9일 중국의 선박제조협회 부설 연구소인 선박정보중심(船舶信息中心)이 최근 펴낸 보고서를 인용, 중국이 현대적인 대양해군을 육성하기 위해 현재 배수량 1만t 이상의 최신형 구축함을 건조 중에 있다고 보도함.
- 중국의 차세대 구축함 건조 계획은 가까운 장래에 항공모함을 보유 하겠다는 인민해방군(PLA)의 목표와도 부합되는 것임. 선박정보중심의 보고서도 신형 구축함이 PLA의 ‘또 하나의 승부수’가 될 것이라고 전망함. 중국이 보유하고 있는 1세대 구축함은 배수량이 4천t급 이하이며, 러시아로부터 구입한 최신예 소브레멘니급(7천900t급) 구



축함도 배수량이 8천t을 넘지못함.

- 캐나다에서 발행되는 중국어 군사전문지인 칸와(漢和) 방무평론의 앤드레이 창 편집장은 “중국은 멀리까지 나가는 미사일을 탑재한 군함을 건조하기를 원한다”면서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돈수가 큰 구축함이 필요하다”고 말함. 창 편집장은 “배수량이 1만 이상인 구축함만이 사거리가 500km 이상인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을 운반할 수 있다”고 지적함. 중국이 건조·중인 최신에 구축함은 이처럼 사거리 500km 이상의 초음속 함대함 미사일을 탑재하는 것은 물론 스텔스 기능까지 갖추게 될 것으로 알려짐.
- 보고서는 “PLA는 차세대 구축함을 통해 중국과 서방세계간 해군력의 격차를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함.

#### ● 柳외교, 佛대북특사 면담..대북 공조 합의(10/7)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7일 방한 중인 자크 랑 프랑스 대북정책 특사를 만나 북핵을 비롯한 북한 문제에서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외교통상부가 밝힘. 유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랑 특사와 오찬을 겸해 면담하고 북핵문제와 남북 관계에 관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설명하고 향후 바람직한 대북 정책을 위한 한-프랑스 협력 관계 강화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고 외교부는 전함.
- 특히 유 장관은 “인도적 지원은 북핵과 관계없이 해 나갈 방침이지만 산업인프라와 같은 대규모 지원은 핵문제 해결과 연관지을 수밖에 없다”면서 북핵문제 해결에 맞춰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대규모 대북지원을 할 용의가 있다는 정부의 입장을 설명함. 랑 특사는 이에 대해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상황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과 평가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 “북핵을 비롯한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5자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공조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함.
- 그는 이어 “이런 배경에서 다음 달 북한을 방문하기 전 한국을 비롯한 관련국을 순방하게 됐다”며 “앞으로 프랑스의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한국과 긴밀히 대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고 배석했던 외교부 관계자가 전함. 유 장관은 또 랑 특사와 한-프랑스 양국 관계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하고 2010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한국 개최를 지지해 준 것에 사의를 표했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 ● <日 오자와, 민주당 지배체제 확립>>(10/8)

- 일본의 집권 민주당내에서 가장 많은 의원을 거느려 ‘상왕’으로 불리는 오자와 이치로(小澤一郎) 간사장이 당직 인선을 완료, 자신의 지배체제를 확립함. 오자와 간사장은 7일 고시이시 이즈마(興石東) 참의원 의원회장을 당 2인자인 간사장 직무대행에 임명하는 등 핵심 당직 인선을 끝내고 8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감.



- 일단 겉으로는 이번 인선이 내년 7월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에 대비한 ‘전시체제’로 보여짐. 당료회의 멤버 10명 가운데 6명을 참의원으로 채웠음. 오자와 간사장으로서는 자신이 진두지휘한 8.30 총선에서 대승해 정권에서 확고한 지배력을 구축했으나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하지 못할 경우 자신의 기반은 물론 민주당 정권의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음.
- 따라서 오랜 참의원 선거 노하우를 지닌 고시이시 참의원 의원회장을 중용하고, 선거대책위원장과 선임 부간사장을 모두 참의원에서 발탁함.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핵심 보직이 자신의 측근이나 심복 일색이어서 1인 지배체제를 확실하게 한 것으로 평가됨.
- 우선 고시이시 간사장 직무대행은 오자와 간사장과 ‘이심전심’의 관계임. 작년 4월 오자와가 민주당 대표였을 당시 니시마쓰(西松)건설 위법헌금 문제로 궁지에 몰리자 고시이시는 “오자와씨가 사임할 필요가 없다”며 끝까지 옹호함. 오자와 간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당직 인선은 사전에 고시이시 참의원 의원회장과 상의했으며 내년 7월 참의원 선거 지원을 위해 지방 출장이 잦을 경우 당무를 일정부분 고시이시씨에게 맡기고 싶다”고 친밀감을 부각시킴.
- 오자와 간사장은 고시이시를 간사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하면서 대표대행과 부대표직을 모두 없애 고시이시에게 명실상부한 당내 2인자 지위를 부여함. 당료회의 멤버 가운데 선거대책위원장인 이시이 하지메(石井日) 전 부대표, 총무위원장인 오쿠무라 텐조(奥村展三) 전 대표비서실장, 호소노 고시(細野豪志) 조직·기업단체위원장도 오자와의 측근임.
- 14명의 부간사장도 중의원 선거에서 자신의 부름을 받고 나가 오타 아키히로(太田昭宏) 공명당 대표를 격파한 아오키 아이(青木愛) 의원과 자신의 전 비서출신 중의원 등 심복들로 구성함. 반면 당내에서 정책통으로 알려져 중용이 기대됐던 에다노 유키오(枝野幸男) 전 정조회장, 구 사회당 계열의 실력자인 하치로 요시오(鉢呂吉雄) 중의원은 ‘왕따’를 당함.
- 이 두사람은 모두 지난 5월 당 대표 선거때 오자와가 지지했던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현 총리 대신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현 외상을 밀어 눈밖에 났기 때문임.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이번 당직 인사는 오자와씨의 측근으로 채워진 ‘오자와流’ 인사”라고 평가함. 당 대표인 하토야마 총리로부터 당 운영의 전권을 부여받은 오자와 간사장은 따르는 중.참의원이 150명에 이르는데다 측근 위주로 당직 인선을 완료함으로써 국정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한 층 강화함.

#### ● <中 잇단 대북 교두보 확보..東進 의욕>(10/7)

- 중국이 잇따라 대북 진출 교두보 확보에 성공하면서 오랜 염원이었던 ‘동진(東進)’ 실현에 강한 의욕을 보이고 있음. 중국은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의 방북을 계기로 2년여 끌어온 압록강 대교 건설에





대한 북한의 동의를 얻어내면서 단둥(丹東)을 거점으로 한 대북 교역 확대의 길을 열어 놓은 데 이어 나진항 1호 부두의 사용권까지 확보, 동해 진출의 발판도 마련함.

- 중국은 오래전부터 대북 진출에 큰 공을 들여왔음. 북한의 대외 개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풍부한 북한의 광물자원을 선점하겠다는 의도에서임. 북한의 풍부한 광물자원은 진작부터 중국은 물론 한국과 러시아, 일본 등 주변국들의 관심 대상이었음.
- 우리 정부는 북한 내 매장 광물의 가치가 6조 달러(약 7천2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골드만삭스는 남북한이 통일되면 북한의 풍부한 노동력과 광물자원, 남한의 기술이 더해져 2050년께 일본과 비슷한 경제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음. 이미 에너지 자급률이 90%에 이르고 있지만 인접한 북한의 풍부한 광물은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욕심낼만한 것임.
- 원 총리의 이번 방북에서 상당한 대북 원조를 약속한 것으로 보이는 중국이 그 대가로 유독 압록강 대교 건설 성사에 매달린 이유도 북한의 광물 확보를 위한 대북 교두보 확보가 시급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임. 나진항 부두 사용권 확보는 단순한 대북 진출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음. 광물 확보를 위한 북한 내 거점 마련은 물론 동해로 나갈 수 있는 뱃길이 열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임.
- 이럴 경우 지린(吉林)과 헤이룽(黑龍江), 네이멍구(內蒙古)의 풍부한 지하자원과 곡물을 철도를 이용한 육로운송보다 훨씬 저렴한 물류비용으로 남방에 운송할 수 있게 됨. 나진항을 통한 동해 진출은 또 훈춘(琿春)을 전진 기지로 한 두만강 유역이 동북아시아의 물류 거점으로 거듭날 기회도 부여하게 됨. 중국은 이미 훈춘에 2016년까지 100억 위안을 들여 대단위 동북아변경무역센터를 건설키로 하는 한편 한국과 일본, 홍콩 등 외국인 전용 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마련, ‘두만강의 동해 시대’를 대비해왔음.
- 2000년 이후 줄곧 나진항 진출을 모색해왔으나 뜻을 이루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해 러시아가 나진항 3호 부두 점용권을 선점하는 바람에 뼈 아픈 일격을 당했던 중국으로서는 러시아와의 대북 진출 경쟁에서 균형도 이룰 수 있게 됐음. 러시아와 북한이 2007년 나진-블라디보스토크의 하산 구간 철도망을 개보수, 시베리아횡단철도(TRS)와 연결하기로 합의하고 이 공사를 전담할 합영회사까지 설립한 터여서 나진항 진출로 중국은 자연스럽게 시베리아에 진출할 길도 확보하게 됐음.
- 중국의 잇단 대북 진출은 2003년부터 중국판 ‘지역 균형발전’ 전략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동북진흥 구상과도 맞물려 있음. 낙후된 동북 지방을 연해지역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마련된 동북진흥책은 크게 라오닝연해경제벨트, 압록강 개발, 두만강 개발로 분류되는데 압록강이나 두만강 개발 모두 북한과 공조해야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게 중국의 생각임.



- 지난 7월 중국 국무원이 라오닝연해경제벨트를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한 데 이어 3만㎡ 규모의 두만강 개발 프로젝트인 창-지-투(長-吉-圖·창춘-지린-투먼을 연결하는 경제벨트) 개방 선도구 개발 사업에도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등 중국 정부는 올해 들어 동북진흥에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음. 남으로는 압록강 대교 건설을 성사시키고 북으로는 나진항 부두 점용권을 확보함으로써 중국의 동북진흥, 더 나아가 동해까지 뻗어나가려는 동진 정책이 구체적 윤곽을 드러내고 있는 것임.

#### ● 日 외상, 韓中日 공통교과서가 이상적(10/7)

-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일본 외상이 7일 한·중·일 교과서 문제와 관련, 미래의 이상은 한국과 중국, 일본 공통의 교과서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힘. 산케이신문 등 일본 현지언론에 따르면 오카다 외상은 이날 오후 도쿄 외국특파원협회에서 열린 강연에서 이렇게 말함.
- 그는 “일본의 교과서는 기본적으로 제작자가 자유롭게 만들 수 있어 국가가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느냐하는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고 한·중·일 공통의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것이 이상이지만 거기까지 이르기 위한 첫걸음으로 역사에 대한 공동연구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함. 일본의 현직 각료가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 국가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일본의 교과서 문제와 관련 ‘공통 교과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임.
- 그는 역사 인식과 관련 “과거 전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의 기분은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말해 무라야마(村山) 담화의 답습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인식을 표명함. 오카다 외상은 이어 “(일본의 침략전쟁에 대해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가 있었음에도 과거 이에 반하는 각료의 발언이 있었다”면서 “(향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싶다”고 밝힘.
- 오카다 외상은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총리가 아시아 중시의 관점에서 제창하고 있는 동아시아공동체의 구성국은 “일본, 중국, 한국, 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을 범위로 상정하고 있다”고 말함. 이는 동아시아공동체가 출범할 경우 미국은 정식 가맹국이 될 수 없음을 명백히한 것이어서 주목됨.
- 오카다 외상은 그러나 “동아시아공동체 구상에 들어오지 않는 국가를 배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동아시아공동체가 구체화할 경우 미국을 일정 부분 배려할 것임을 시사함. 그는 “하토야마 총리가 미국에 대해 부정적 거리를 둔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미일 동맹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함.
- 동아시아공동체의 지향점과 관련 오카다 외상은 “우선 경제부터 시작해서 환경과 보건위생 등으로 협력 분야를 넓혀가겠다”고 말했으며, 역내 통화통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협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밝힘.



● <한·중·일 美대사 서울서 한자리>(10/6)

- 한·중·일 3국간 협력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한, 주중, 주일 미국대사가 6일 서울에서 회동, 눈길을 끌고 있음.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와 존 헨츠먼 주중 미국대사, 존 루스 주일 미국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유명한 외교통상부 장관을 예방함.
-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북핵문제와 남·북관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입장을 설명했으며 이들 대사는 우리 정부의 노력과 한·미관계 발전을 높이 평가함. 또 양측은 북핵과 기후변화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한·미·중·일 4개국간 긴밀한 협력관계가 발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역내와 국제사회의 평화·번영에 기여해 나가도록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음.
- 외교부 관계자는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 시절부터 연례적으로 3국의 미국대사들이 만나왔다”며 “한·미관계 발전과 한반도 문제, 역내 문제들에 관한 협력 증진을 위해 유익한 기회가 됐다”고 평가함.



### [참고 1] <한·중·일 정상 공동회견 전문>(연합뉴스, 10/10)

(베이징=연합뉴스) 추승호 이승우 기자 =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10일 중국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역내 정치·안보와 경제 분야 등에서 ‘전략적 동반자’ 수준의 협력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음은 3국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한 합의 내용.

#### <모두 발언>

▲원자바오 총리 = 우리는 회의에서 중·한·일 협력과 중대한 지역 및 국제 문제들에 대해 심도 있고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했으며, 광범위한 협의를 달성했다. 정상회의 의장으로서 회의에서 거둔 성과에 대해 새롭게 생각하며, 이명박 대통령과 하토야마 총리가 이를 위해 해주신 중요한 기여에 감사드린다.

올해는 중·한·일 협력 주년이다. 과거에 같이 걸어온 과정을 돌이켜 보면서 그간의 성과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고 전략적 고려에서 3국 관계를 인식하고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서로 존중하고 선린우호, 즉 서로 간의 중요한 관심과 핵심적 이익을 베푸는 것은 중·한·일의 정치적 협력의 기초이며 호혜협력을 강화하고 3국 국민에게 실질적 이익을 주는 것은 3국 협력의 중요한 추진력이고, 3국 국민 간 연락을 긴밀하게 해서 우호를 강화하는 것은 현재뿐 아니라 후손에게도 혜택을 줄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세계가 큰 변화와 큰 조정, 큰 발전을 겪고 있는 시대에 중·한·일 3국은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도전을 맞이하고 있다. 전면적 협력을 심화해야 각자의 발전을 잘 추진할 수 있으며 동북아 발전과 세계 평화를 위해 역할을 발휘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정치적 상황을 이해해 전략적 상호 신뢰를 증진하고 무역, 투자, 금융, 교통, 정보, 환경보호, 녹색경제, 공공위생 및 인접 분야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3국의 협력 수준을 전면적으로 높이고, 아세안 일체화 건설을 지지해 여러 형식의 지역협력을 추진하고 대화와 협상의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구동존이’하며 서로 포용하고, 서로 영애하며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조화로우름을 같이 추진하고, 손을 잡고 기 후 변화 국제금융위기 등 글로벌 위기 대응, 도전을 이겨나가며 지속발전을 추진해 나갈 것을 동의했다.

중·한·일 협력 10주년에 대한 공동성명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중·한·일은 서로 가까운 나라이며 아시아의 큰 나라이다. 협력 강화하는 것은 3국의 이익에 부합할뿐 아니라 아시아, 나아가 세계에도 유리하다. 이번 회의를 통해 중·한·일 협력의 방향을 더욱 명확하게 했고 내용을 더욱 풍부하게 했다. 우리 결심도 굳어졌다. 3국





지도자와 국민들의 공동 노력에 의해 중·한·일 협력의 내일은 더욱 아름답다.

**▲이명박 대통령** = 먼저 오늘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신 원자바오 총리께 감사드립니다. 매우 치밀한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오늘 3국 정상회의가 매우 화기애애하게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었다.

지난 10년 간 3국은 협력관계에 있어서 크게 발전해 왔다. 그러나 지금 시점에서 향후 10년을 내다보면 또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다. 이제는 세계 어떤 나라든 위기를 극복한다든가, 또 경제적 발전을 한다든가, 또는 안보 등의 면에 있어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모든 나라가 서로 협력하며 서로 이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위기 극복 과정에서 선진국과 신흥국가들의 강력한 협력에 의해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우리 지역의 동아시아 3국이 오늘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거의 의견 일치를 봤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우리 3국은 인구와 GDP(국내총생산), 무역량에 있어서는 이제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와 EU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이며 3국의 위치는 날로 높아 가고 있다. 또한 3국은 지역의 공동번영도 중요하지만 세계 번영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책임도 따른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인식 하에 이번 회의에서 세 나라 정상들은 ‘한중일 3국 협력 10주년 기념 공동성명’과 ‘지속가능개발 공동성명’을 채택하게 됐다. 이것은 매우 의미가 있고 상호 신뢰와 존중, 공동 번영, 세계 모든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의 행동, 여러 면에서 괄목할 만한 발전을 포함한 성명을 채택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 3국은 여러 협력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확대된 사항을 보다 더 실천적으로 옮기는데 있어서 구체적으로 사무국 관련 문제도 논의됐다.

또한 우리 세 정상은 북한 핵문제에 관해서도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최근 원자바오 총리의 방북과 관련해 자세한 설명을 해줬고, 또 원자바오 총리 방북 결과에 대해서 3국 정상은 높이 평가하고 동의했다. 이제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더 강한 3국 공조가 필요하다는데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또한 본인은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해결을 위한 일괄타결(그랜드바겐) 구상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3국을 포함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며, 북한도 이러한 구상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국제 경제 및 금융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고 또한 거기에 대해서도 전적으로 서로 합치된 의견을 가졌다. 세계경제가 지속가능하고, 균형된 성장을 이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내년 11월 한국에서 열릴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3국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제 우리 3국 정상의 만남이 향후 3국 협력이 현 단계에서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이번에 처음 참석하신 하토야마 총리와 더불어 개인적 신뢰도 갖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됐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3국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번영을 추구하면서 협력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다시 한 번 이번 회의를 성공적으로 주최해준 원자바오 총리께 감사드린다.

▲**하토야마 총리** = 지속적인 성장을 우선한 기후변화에 대한 공동성명도 발표할 수 있게 된 것도 무엇보다 훌륭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언급이 있었듯 동아시아의 70%에 달하는 GDP를 3국이 담당하고 있다. 그만큼 우리 3국이 지금까지 이상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나가는 것은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 경제를 위해서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불가피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각각 경제상황이 다르다. 그만큼 서로 단독 행동을 하면 좋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협력이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인식을 함께했다. 특히 일본은 고용관계가 아주 힘든 상황에 있다. 한국도 어쩌면 유사한 상황이 아니겠는가 생각한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출구전략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인식에 의견 일치를 봤다.

원자바오 총리도 이러한 출구전략이 오히려 세계를 실패로 이끌어 나갈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지당하신 말씀이다. 특히 각 나라가 특색을 살려서 경제를 제 궤도에 올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협력을 통한 관계를 심화시킴으로서 3국이 되도록 세계에서 빨리 경제적으로 재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자. 그렇게 하기 위한 협력을 하자는데 합의했다. 저희로서도 이 삼국의 FTA라는 것이 진전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3국의 투자협정이 내년에 빠른 시일 내 체결될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보호주의에 빠지지 않는 형태로 3국이 리더역할을 한다하는 그러한 부분에서도 협력관계가질 수 있었다.

두 번째 기후변화, 저도 후진타오 주석도 이명박 대통령도 유엔에서 연설을 했다. 각각 서로 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를 서로 해주신 것 같다. 일본으로서는 과감한 제안을 드러서 리드 역할을 견인차 역할을 하고자 한다. 그리고 3국이 함께 성공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자는 공통목표를 가지면서 각각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지구의 미래를 서로가 지켜가자 하는 것도 서로 다짐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3국의 협력을 위해서 불가피한 것은 청소년의 교류이며, 또 특히 대학생들의 교류가 아니냐고 말했다. 대학생 교류의 일환으로서 대학 간에 예를 들어 학점의 인정, 이러한 일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생각해야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질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 된다. 따라서 모든 대학에서라는 것은 당장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질적인 부분을 비슷하게 하면서 서로 학점을 인정하면서 3국간 남아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학점을 교환함으로써 3국의 여러 가지 남은 현





지한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일관되게 안보리 결의안을 엄격히 준수하고 상임이사국 의무를 이행해 왔다. 북한에 원조를 제공했고,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개선에 썼다. 안보리 결의안 정신과 일치한다. 중국 측이 한 일은 6자회담 추진을 위해 한 것이다.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위해 동북아 평화안정을 위해 추진해 왔다. 앞으로 꾸준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중·한·일 3국이 오늘 정상회의에서 동북아 지역정세를 진지하게 검토했고 6자 회담을 논의했고 중요한 의견(일치)을 달성했다. 평화 안정을 실현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는 것은 공동관심사인 중요한 문제다. 정상회담에서 3국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의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 일치를 봤다. 우리는 조속히 6자회담을 재개하고 주도적 역할을 할 것이다.

- 이명박 대통령이 한·중·일 정상회의 사무국 조직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자세히 소개해달라. 그리고 그랜드 바겐 구상에 대해 어떤 협의가 이뤄졌는가. 6자 회담 재개 전망을 어떻게 보는가.

▲(이명박 대통령) 단순한 경제협력 문제뿐 아니라 앞으로 기후변화, 지역 간 경제문제 또는 세계 글로벌한 이슈에 대해서도 3국이 해야 할 역할이 많다. 특히 재난, 질병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게 되는데 수많은 협력이 실무적으로 총괄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겨 나가는 데에 다소 비효율적일 수 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인원을 파견하는 사무국을 만들기 이전에 사이버로 만들어서 운영해 나가고 1년 정도 운영한 뒤 평가 결과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하겠다고 하는 것이 정상회의에서 논의됐다.

핵문제와 관련해서 원자바오 총리가 방북 결과를 이 자리에서도 소상하게 말했다. 최종 목표는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고 한반도 비핵화를 이루는 것이다. 북한의 6자회담 참석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참여해서 핵포기 합의를 이루는 게 우리의 목표임을 북한도 알아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핵문제는 남북한 당사국 문제뿐 아니라 세계 공통된 관심사이고 세계 평화와 직결되어 있다.

공통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반하는 핵개발을 지지하겠다는 것이고 남북한 문제와 더불어 국제간 공조가 매우 필요하고 그 중심은 6자국이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며 이때 해결되지 않으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지금이 북한이 핵을 포기할 좋은 기회라는 관점에서 일괄타결 제안을 했고 북한으로 봐서도 핵을 포기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을 것이다. 이 전제조건을 내놓고 6자 회담에서 논의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이 제안에 대해 오바마 미 대통령과 러시아 메드베데프 대통령에게도 자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어제 하토야마 총리께도 이 문제를 자세하게 설명했고 협의했다. 오늘도 이 문제에 대해 제안했다. 제안이 아니고 6자 국가들이 공통





으로 평소 생각하던 것인데 이제 해야 될 단계가 왔지 않느냐 하는 관점이다. 이 제안이 계속해서 대북협상에서 논의가 될 것이다. 한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서로 이야기하고 싶다는 북한의 의사를 환영한다. 항상 열린 마음으로 있다. 만나는 것의 최종 목표도 결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게 전제가 됐을 때 북한이 원하는 협력을 할 수 있다. 일괄타결의 전체 테두리(에서), 6자 회담의 테두리(에서) 논의하게 되기 때문에 기회가 닿으면 언제든지 북한에 대해서도 그러한 방침을 설명드리고 협력을 구하고자 한다.

어쩌면 오늘 이 문제를 3국이 논의하고 있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공동기자회견을 했으면 좋은 답변을 했을지도 모르겠다. 매우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고 의장국인 중국 측에서 계속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있어서 중국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 합의를 강력하게 지켜나가면서 하겠다고 한 점을 높이 평가하고 일본 하토야마 총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통해 동아시아 평화, 세계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한국은 열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 하토야마 총리는 지구온난화 등 국제적 과제와 지역문제 등에 3국간 공조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하토야마 총리) 3국 정상의 신뢰관계가 향상돼 정치적 문제 해결을 위해 늘 공조를 한다. 그 일환으로 이 같은 정상회의가 매우 의미가 있다. 이 대통령이 상설사무국을 설치함으로써 그러한 문제를 글로벌 문제와 지역적 과제를 나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구 환경문제는 유엔에서 말했듯 상당한 모멘텀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많은 국가가 코펜하겐(합의)을 실패로 만들어선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포기로부터 성공으로 이끌어야 한다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얘기를 했다. 일본의 입장을 말씀드렸고 각국이 노력을 하자고 했다. 각각 차원에서 목표가 일치하지 않겠지만 정치적 메시지를 발표해 코펜하겐(합의)을 성공으로 충분히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나라마다 경제적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협조하는데 의미가 있다. FTA 추진도 민간에서 정치적 차원으로 격상시키고 3국의 투자협정을 먼저 내년에 성립시키는 것이 경제적 3국 협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경제위기 극복에 일조할 것으로 본다. 북한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으로서는 북한 핵 폐기, 탄도미사일, 납치문제를 말씀드렸고, 이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그랜드 바겐이라는 표현으로 이 대통령이 제창했다. 그 방향성을 공유하면서, 목적을 실현시키면서 북한의 구체적 행동을 요구하는 스텝으로서 양자대화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원자바오 총리가 노력한 것으로 높이 평가하고 그 속에서 일북 관계도 개선하고 싶다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뜻도 전해들었다. 이 말을 믿고자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6자회담 복귀가 이뤄졌으면 좋겠다.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회담에서도 말했듯 ‘미북 회담도 좋다’면서 6자회담 복귀를 얘기했다. 6자 회담에서 패키지로



서 (북한이) 새로운 행동을 시작할 것을 기대한다.

중국의 물 처리 문제에서는 민간 협력이 필요하다. 서로가 윈윈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본기업에서 물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노하우를 중국이 살려서 서로가 해결하면서 경제발전에도 도움이 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3국 정상 간의 회의가 실천력 있게 움직이는 것이 지역적, 세계적 문제 해결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leslie@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10/10/0505000000AKR20091010056000001>.  
HTML



[참고 2] <한·중·일 정상 공동성명 요약>(연합뉴스, 10/10)

(베이징=연합뉴스) 추승호 이승우 기자 = 이명박 대통령과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10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정상회의를 갖고 향후 협력 확대를 위한 구체적 실천 과제를 담은 ‘한·중·일 협력 10주년 공동성명’과 ‘한·중·일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다음은 3국 정상이 공동회견을 통해 발표한 성명 요지.

◇ 한·중·일 협력 10주년 공동성명

<전문>

- ▲한·중·일 협력은 지난 10년간 3국의 공동 이익은 물론 지역 평화와 안정 및 번영에 기여해 온 것으로 평가한다.
- ▲향후 10년 동안에도 상호 존중, 평등, 공동 이익, 개방성, 투명성 및 다양한 문화 존중의 원칙 하에 선린 우호, 상호 신뢰, 포괄적 협력, 상호 이익 및 공동발전의 방향으로 아래 분야에서 협력을 도모한다.

<합의사항>

- ▲정치·외교 분야의 상호 신뢰 증진
  - 고위급 접촉 및 전략적 대화 노력을 경주한다.
  - 상생하는 협력 동반자 관계를 지향한다.
- ▲경제·통상 분야의 상호 유익한 협력 증진
  - 녹색 성장 추진, G20 정상회의를 통한 경기 회복, 보호무역주의 반대 및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 성공을 도모한다.
- ▲인적 교류 확대
  - 청소년, 언론, 학술기관 및 지자체간 교류를 확대한다.
  - 재난관리, 보건, 관광, 인적자원, 교육 및 스포츠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
- ▲아시아의 평화, 안정 및 번영 증진
  - 6자 회담의 조속한 재개
  - 아세안, 아세안+3, EAS(동아시아정상회의), ARF(아시아지역안보포럼), APEC(아태경제협력체) 등 지역협의체의 발전을 도모한다.
- ▲범지구적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
  - 기후변화, 금융위기, 에너지 안보, 공중보건, 자연재해, 테러, 군축, 비확산 및 유엔 개혁 등 협력을 강화한다.



◇ 한·중·일 지속가능 개발을 위한 공동성명

<전문>

- ▲지속가능 개발은 모든 국가의 생존과 발전, 전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직결된 문제이다.
- ▲녹색경제 성장, 사회·경제 및 자연·생태 체제의 선순환 촉진, 경제성장과 사회의 균형 발전, 지속가능 개발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합의사항>

- ▲제11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에서 합의된 10개 환경 우선협력 분야 지지 및 2010년 제12차 TEMM에서 채택될 3국 공동행동 계획 수립 촉구
- ▲한·중·일 순환경제모델 기지 구축 모색  
-3R(ReducRecycle)에 입각해 자원 보존, 친환경 산업 구조, 발전 방식 및 소비 형태 증진에 노력한다.
- ▲한·중·일 과학기술 발전과 공동연구 협력 프로그램 추진
- ▲기후변화 대응 하천 관리 및 수자원 관리 등 수자원 관련 장관간 협의체 설립
-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및 야생동물 보호 협력 촉구
-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증진 협조
- ▲농업 분야 3자 협의체 모색
- ▲유엔 기후변화기본협약의 원칙 견지 및 코펜하겐 회의의 성과 도출을 위한 협조 강화

leslie@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9/10/10/0505000000AKR20091010030600001>.  
HTML





[참고 3] <한·일정상 공동회견 모두발언 전문>(연합뉴스, 10/9)

(서울=연합뉴스) 이승관 기자 = 이명박 대통령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9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어 회담 결과를 설명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과 하토야마 총리의 기자회견 모두발언 전문.

- ◇이명박 대통령: 오늘 하토야마 총리 내외의 한국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하토야마 총리의 이번 방한은 취임 이후 양자 차원의 첫 해외 방문이다. 이것은 한·일 양국 관계가 그만큼 가깝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다. 본인은 하토야마 총리를 취임 전인 지난 6월 만나서 상호 신뢰를 쌓았으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그 관계가 더욱 공고해졌다고 생각한다.
- 이 기회를 빌려 하토야마 정부의 출범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또한 하토야마 총리의 탁월한 지도력 아래 일본이 계속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 우리 두 정상은 회담에서 한·일간 협력 관계는 양국은 물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 본인은 하토야마 총리가 과거를 직시하는 가운데 진정성과 열린 마음으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높게 평가했으며, 우리 두 정상은 앞으로 가깝고도 가까운 한·일 관계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본인과 하토야마 총리는 중소기업간 협력을 포함한 민간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양국 정부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또한 최근 도쿄(東京)에서 개최된 ‘한·일 축제 한마당’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이러한 축제행사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으며, 제3기 한·일 문화교류 회의를 조속히 출범시키기로 합의하는 등 양국 간 문화교류를 더욱 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 두 정상은 신성장 동력으로서 ‘한·일 그린 파트너십(Green Partnership) 구상’의 구체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의 근본적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동시에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북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하도록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북한 핵문제와 관련,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과거의 협상패턴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이를 위한 일괄타결(그랜드바겐·Grand Bargain) 방안에 대해 여타 6자회담 참가국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 내년 한국과 일본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와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과정에서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기후변화 대응, 동아시아 지역협력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본인은 이번 하토야마 총리의 방한이 개인적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 관계 뿐 아니라 세계가 당면하고 있는 주요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협력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확신한다. 다시 한번 하토야마 총리 내외분과 일행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 ◇**하토야마 총리:** 오늘 이 대통령 내외가 저희를 서울에 초청을 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여러분과 한국문화를 상당히 좋아한다. 대부분의 일본 국민들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 선거 직전인 지난 6월에도 한국을 방문했고, 총리가 된지 3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첫 해외 방문국으로 한국을 택하게 된 것도 역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가깝고도 가까운 나라로 만들고자 하는 마음을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기쁜 일이라고 하겠다.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양국이 중심이 돼서 더 많은 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심화시켜 가면서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구상을 실현시키는데 한걸음 한걸음을 내디디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 대통령과 공유를 할 수 있었고, 이것 또한 기쁜 일이라 하겠다.
- 한국과 일본 간에는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다. 저는 신(新) 정부가 똑바로 역사를 직시할 수 있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정권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취임한 지 3주일이 되지 않았고 따라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양국 관계를 더욱더 양호하게 하는 것이 아시아 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제와 평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을 했고, 이 대통령도 공감했다.
- 양자회담에서는 동아시아 공동체 문제와 그리고 북한 문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이 대통령께서 주장하고 있는 그랜드 바겐, 일괄타결 방안이 아주 정확하고 올바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의 핵개발, 나아가서는 탄도미사일의 개발에 대해서 일괄적, 포괄적으로 문제를 파악해 북한의 뜻이 나타나지 않는 한 경제협력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고, 경제협력을 위한 전제로서 (핵 포기라는) 북한의 구체적인 뜻과 의지가 거기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은 정말 올바른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 일본에는 납치라는 문제가 있다. 한국에도 역시 같은 종류의 인권문제가 있다는 것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포괄적 해결 패키지 속에 납치문제도 당연히 들어가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본과 한국이 협력을 하면서 그리고 미국, 중국과도 협력을 하면서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을) 6자회담의 무대로 복귀를 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일본과 한국이 협력을 하자는 점을 서로 확인했다.
- 확대 정상회담에서 시간은 한정되어 있었으나 양국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최근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서로 고민을 공유하고, 강한 부분을 상대국에게 지도하면서 서로 보완적으로 협력을 함으로써 금융위기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같이 연구하자는 얘기를 했다. 그리고 젊은 세대에 문화교류 그리고 대학간 교류를 발전시키자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

- 그리고 이 대통령에게 제 아내가 훌륭한 한류 스타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한·일축제에도 참석을 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젊은 세대의 마음의 교류가 축적됨으로서 여러 정치적인 현안도 점차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눴다. 아주 짧은 시간이었으나 유익한 교류의 자리를 이 대통령이 마련한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고 양국 관계가 더욱더 크게 발전해 나갈 것을 기대하고 있다.

humane@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09/10/09/0602000000AKR20091009105100001.HTML>



[참고 4] <한·일 정상 공동회견 일문일답>(연합뉴스, 10/9)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기자 = 이명박 대통령과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일본 총리는 9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내용과 합의 사항 등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과 하토야마 총리는 회견에서 한국과 일본 기자 4명으로부터 2개씩의 질문을 번갈아 받았으며, 이번 회담을 통해 상호 신뢰가 더욱 쌓였다는 점을 시종 강조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 하토야마 총리와의 회견 일문일답.

- 이명박 대통령이 제안한 그랜드바겐에 대해 북한은 거부 의사를 보였으며, 북·미 회담 이후 6자 회담 복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가질 수 있다. 북한의 6자 회담 복귀 가능성을 어떻게 예상하나.
  - ▲(이명박 대통령) 우리는 북한이 핵개발을 시작한 이후에 오랫동안 협상해오면서 많이 경험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 핵 문제에 있어 당사자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일괄타결, ‘그랜드바겐’이라는 제안을 했고 많은 나라들이 동감을 표시했다. 특히 북한의 반응은 우리 한국이 제안한 문제에 대해 깊이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라고 북한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6자 회담은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북한을 방문해 발표했다. 자세한 것은 내일 3국이 정상회담을 하면서 듣게 되겠지만, 북한도 6자 회담에 나와야 하지 않겠느냐. (북한이) 나오지 않으면 안되는 분위기가 국제사회에 형성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을 평가하고 (북한이) 북·미 회담을 통해서 6자 회담 나올 것이라는 가능성을 확신하고 있다.
- 하토야마 총리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과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포괄적 해결에 대해 의견 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나.
  - ▲(하토야마 총리)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회담했다. 거기에서 상당히 구체적 의견교환이 이뤄진 게 사실인 것 같다. 거기서 6자회담의 가능성을 언급한 것처럼 듣고 있다. 그리고 북·미 회담이 이뤄질 전망이다.
  - 얼마 전 뉴욕에 갔을때 오바마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나는 ‘북·미간 회담을 지지한다. 그런데 지지하기 위한 전제로서 6자회담에 꼭 유도해주시시오’라고 말했다. 그런 점에서 납치 문제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협상에 임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준 것으로 이해한다.
  - 이처럼 중국과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디까지나





그것은 6자 회담에 북한이 복귀했을 때, 이 대통령이 제창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이 구체적인 메시지와 행동으로서 핵을 폐기하고 납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을 패키지로 제시했을 때, 그렇게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6자 회담의 5자가 공동보조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동보조를 취하면 그 다음에 아주 밝은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정상회담에서 발견했다.

-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하토야마 총리의 구체적 구상이 듣고싶다. 내년 한·일강제병합 100년을 맞아 이 대통령이 일왕 방한을 초청했는데 성사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재일한국민의 지방참정권 문제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 ▲(하토야마 총리) 역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늘 올바르게 역사를 직시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것은 내가 늘 말씀드려온 것이다. 그것은 새로운 정부 속에서도 중요한 생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소위 ‘무라야마 담화’의 뜻과 마음을 정부의 한 사람 한 사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생각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 일한 관계에서 일본과 한국 국민이 자칫 감정적인 부분이 앞서갈 수 있어서 그것을 억제해야 한다. 국민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린다. 그러한 부분은 이해해 달라. 재일한국인 여러분의 지방참정권 문제도 거기에 포함돼 있는 문제다. 개인적 생각은 이미 알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결론을 도출하고 싶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도 국민 여러분의 정서와 감정이 통일돼 있지 않다. 그것을 통일시키기 위해 내각에서 논의를 계속해 정부로서 결론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 문제도 내각이라는 팩터(요인)를 이해해줬으면 한다
  - 천황폐하 방문에 대해서는, 천황폐하도 강하게 (방한을)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고령이고 일정의 문제도 있어서 총리대신이 어디까지 이에 대해 관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있다. 나로서는 더 이상 말할 수 없으나 이 대통령이 이러한 생각을 시사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간단히 알겠다고 말씀드릴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도 이해해달라.
- 이명박 대통령은 하토야마 총리가 밝힌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에 대해 어떤 생각을 제시했나. 이번 회담을 통해 하토야마 총리와의 개인적 신뢰가 더 강해졌다.
  - ▲(이명박 대통령) 하토야마 총리가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을 말해줬다. 나는 세계가 이미 지역별 공동체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EU(유럽연합)를 비롯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할 것 없이, 또 아세안 10개국도 아세안을 이루고 있는 만큼 동아시아 공동체는 앞으로 바람직한 구상이라는 데 동의한다.
  -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전제적인 여러 사항이 해결돼야 하므로 시간이



조금 걸릴 지 모르지만, 하토야마 총리가 ‘우의’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노력하면 세계가 다 그렇게 되는데 동아시아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개인적 신뢰에 대해서는, 선거 전에 방문해 많은 얘기를 나눴고 생각이 동일한 점이 많다. 한국도 많은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글로벌한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한다. 일본도 세계 경제대국의 한 나라로서 많은 변화를 이루고 있고 세계 지역과 함께 나가겠다는 정신이 있다.
- 개인적 생각이나 정책 방향이 상당히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나는 많은 신뢰를 갖고 있다. 나는 그런데 하토야마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웃음). 어느 때보다 강한 신뢰를 갖고 양국간 문제와 동아시아 문제, 세계 글로벌 문제를 저는 잘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leslie@yna.co.kr

출처: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09/10/09/0602000000AKR20091009106600001.HTML>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